

경기도 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역사와 공감하다

전통문화예술, 시대와 소통하다

현재적 문화예술감수성을 탐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AEM002454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문화원은
이제는
지역이다

역사와 공감하다

—
전통문화예술, 시대와 소통하다

—
현재적 문화예술감수성을 탐하다



경기도 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contents

- 6 프롤로그
- 10 사업개요



CHAPTER 01

역사와 공감하다

- 14 과천 과천향토사료관에서 노을~자
- 18 광명 제22회 오리문화제
- 22 광주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 26 남양주 제16회 천마산 산신제
- 30 성남 성남학 아카데미
- 34 시흥 군자봉 성황제
- 38 안산 역사탐방 아카데미
- 42 양주 2013 양주역사문화대학
- 46 여주 훈민정음 반포 567돌 기념 한글날 행사
- 50 연천 조선왕조 500년 연극프로그램
- 54 파주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CHAPTER 02

전통문화예술, 시대와 소통하다

- 60 가평 제14회 석봉 한호선생 전국휘호대회
- 64 고양 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동 전통혼례
- 68 구리 2013 구리 동구릉문화제
- 72 김포 중봉문화제 & 김포청소년문화축제
- 76 용인 제11회 포은문화제
- 80 의왕 제13회 의왕단오축제
- 84 이천 2013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 88 평택 소사벌단오제
- 92 화성 화성문화원 예절관



CHAPTER 03

현재적 문화예술감수성을 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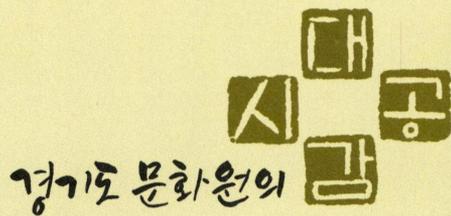
- 98 동두천 2013년 백중상머슴놀이 한마당
- 102 부천 한옥체험마을
- 106 수원 집신신고 수원화성견기
- 110 안성 실버벽화사업단
- 114 양평 꽃누리미(압화강좌)
- 118 오산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
- 122 의정부 제5회 야외물놀이축제
- 126 포천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 130 하남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 나도 플로리스트

- 134 에필로그
- 138 도움을 준 고마운 이들
- 139 경기도 시군문화원 주소록

‘시대’와 ‘공감’... 대안문화의 싹 틔운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있는

문화원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 동네 어디쯤 위치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등 문화원의 뼈대와 구조, 역할에 대해 관심 갖는 이들은 극소수다. 지역문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문화원은 스마트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홀로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버텨내고 있다.

솔직히 지역문화를 이끄는 가장 자리에서도 밀려나 ‘뒷방 늙은이’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래서 2012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 일보는 공동기획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13년은 도내 문화원의 곳곳한 하루, 한 달, 일 년을 진단해봄으로써 문화원이 현재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원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성실한 문화 매개체임을 밝혀내는 중요한 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동일한 문화적 잣대...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선택 · 자율적인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지역문화로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2012년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라는 기획에 이어, 2013년 '경기도문화원의 시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2차년도 사업을 전개하게 됐다. 이 사업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 위에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그 만큼 다양해짐에 따라 그 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다양한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거기서 대안문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카지노’화 하는 현대의 금융자본주의시대. 젊은이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패자의 불행과 굴욕을 맛보고 싶지 않으려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매일 ‘승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메시지로 샤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화한 자본주의 발전의 앞날에 어떤 유형의 ‘인간’이 등장하게 될까? 그렇게 등장하는 인간의 유형은 어떤 문화로 담아내야 하는가?,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2년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라는 기획으로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스타일의 기사를 게재했다.

1차년도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 첫째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면에 집중돼 실제의 기획의도와 그것의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평가에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시·군문화원 사업의 유형별·내용별 카테고리를 보다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위의 평가를 바탕으로 2차년도 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된다. 즉, 문화원 사업이 지역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패러다임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적 의미의 공동체와 정체성의 개념을 현재적 의미와 가치 차원으로 끌어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공동체는 귀속적, 강제적 의미의 공동체라 할 수 있겠다. 즉, 민족공동체, 가족공동체, 지역공동체가 그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공동체적 가치를 담아내는 구조였으나, 현재적 의미와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위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로 담아내는데 한계를 노정한다.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는 선택적, 자율적 공동체라 할 수 있겠다. 같은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그러나 자율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민단체, 동호회 등이 그것이다. 근대적 공동체와 다른 느슨한 구조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을 지역문화로 담아내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을 놓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지방문화원이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가치로 공감하게 되는 지점을 발견하고,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전개하던 사업이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01 개요

- 사업 이름 :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
- 일 시 :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 대 상 : 경기도 30개 문화원
- 취재 및 글 : 경기일보 문화부 류설아, 강현숙 기자

02 추진배경

- 지방문화원은 50년대 자생적으로 생겨나 60년대 근대화 추진시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기 시작했다.
-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문화발전에 있어 만아들 역할을 담당해왔음.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문화원에 대해 잘 모름. 더 큰 문제는 문화원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다는 것. 문화원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다소 진부한 곳으로 알고 있거나, 관 주변 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일보는 공동기획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문화원 다양한 문화사업을 심층보도 한 바 있음.
- 2012년도에 이어 2013년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이라는 2차년도 사업을 전개하게 됨.

03 추진목표

- 2차년도 공동기획의 목표는 도내 문화원 사업이 지역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적 패러다임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을 규명하고자 함.
- 경기도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을 놓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공동기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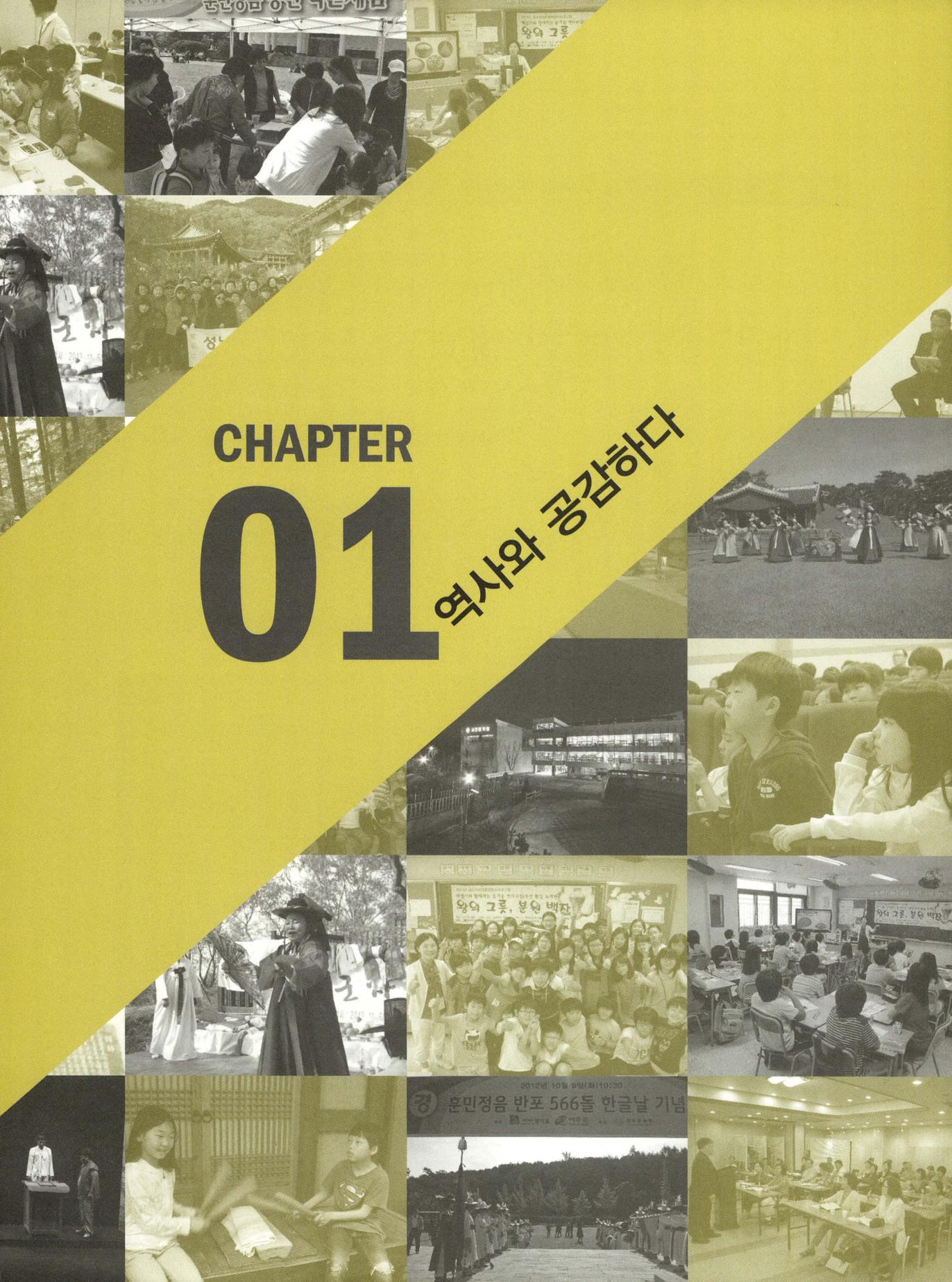
04 진행과정

순번	기사 게재일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04월 09일			프로로그	
2	04월 16일	남양주	제16회 천마산 산신제		
3	04월 23일	구리	2013 구리 동구릉문화제		
4	04월 30일	하남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 나도 플로리스트		
5	05월 07일	성남	성남학 아카데미		
6	05월 14일	용인	제11회 포은문화제		
7	05월 21일	광명	제22회 오리문화제		
8	05월 27일	안산	역사탐방 아카데미		
9	06월 04일	포천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10	06월 11일	의왕	제13회 의왕단오축제		
11	06월 18일	평택	소사별단오제		
12	06월 25일	과천	과천향토사료관에서 노을~자		
13	07월 02일	광주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14	07월 09일	양평	꽃누르미(압화강좌)		
15	07월 16일	화성	화성문화원 예절관		
16	07월 23일	오산	오산시물향기실버방창단		
17	08월 06일	이천	2013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		
18	08월 13일	의정부	제5회 야외물놀이축제		
19	08월 20일	김포	중봉문화제&김포청소년문화축제		
20	08월 27일	동두천	2013년 백중상머슴 놀이 한마당		
21	09월 03일	연천	조선왕조 500년 연극프로그램		
22	09월 10일	부천	한옥체험마을		
23	09월 17일	고양	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동 전통혼례		
24	09월 24일	양주	2013 양주역사문화대학		
25	10월 01일	여주	훈민정음 반포 567돌 기념 한글날 행사		
26	10월 08일	수원	집산신고 화성걷기		
27	10월 15일	가평	제14회 석봉 한호선생 전국회대회		
28	10월 29일	파주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29	11월 05일	안성	실버벽화사업단		
30	11월 12일	시흥	군자봉 성황제		
31	12월 17일			에필로그	

05 평가 및 결과

- 경기도 31개 시·군 각 문화원의 '대표사업 발굴과 그것의 현재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위 사업이 지역 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했음.
- 각 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현재적 의미를 끊임없이 고찰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적 문화 사업이 가능한 방법적 고민을 이끌어냄.
- 경기도 문화원이 과거와 현재의 가치, 그리고 서로의 존중과 인정 속에서 시대와 공감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적 힘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됨.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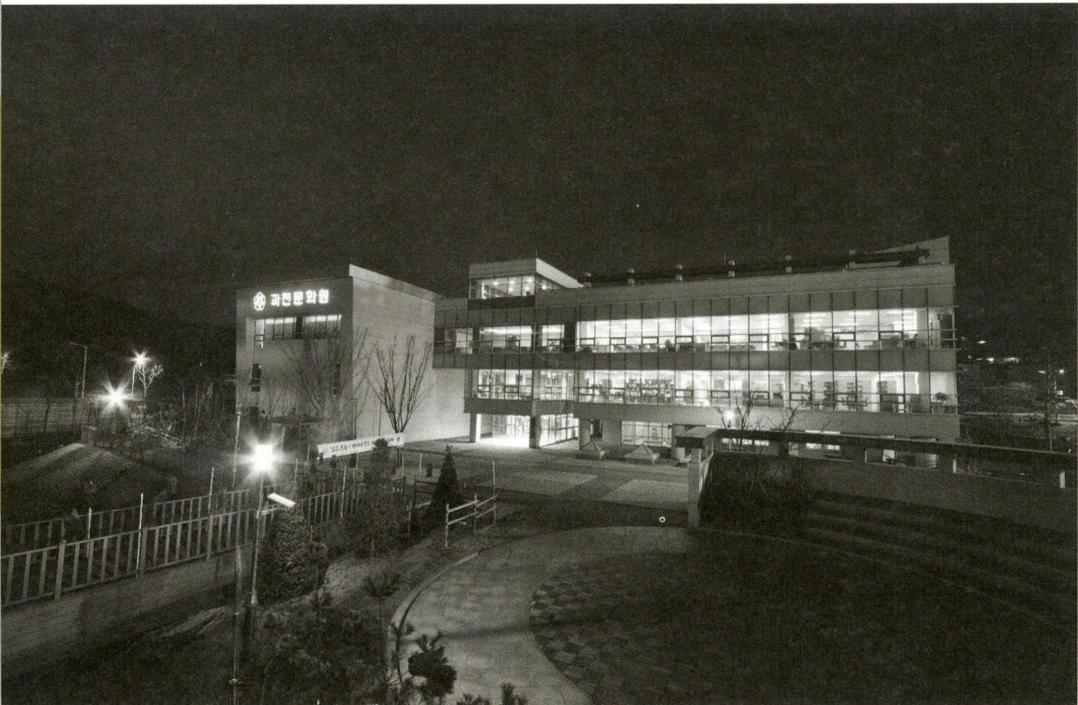
01

역사와 공감하다

2012년 10월 9일(화) 10:30
경 흥민정음 반포 566돌 한글날 기념

개발로 사라진 향토유물 발굴... 과천역사 · 문화 체험공간

흔히 '사람이 힘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광고계와 출판계를 주름잡았던 명문장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 짧은 문장이 결국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사람의 힘'을 인맥이라는 단어에 가둘 수 없음을 말이다. 결코 혼자 살 수 없기에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원동력 삼아 발전하는 시대와 사회를 목격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 여기, 과천향토사료관이 그 '사람의 힘'의 입증하고 있다.





한말 때 만든 교지함 · 농기구 등 발로 뛰며 유물 2만여 점 수집
 기획전 ·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공간 · 전문인력 확보 절실



‘과천(果川)’으로 불리기 시작한

조선시대 과천현은 지금의 과천시와 안양시, 서울시 서초구 · 관악구 · 동작구 일대를 관할했다. 일제시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현의 소재지인 군내면만 과천면으로 바꾼 이래 계속 그렇게 불리다가 1982년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온 후 1986년 과천시로 승격했다.

과거 과천시는 자급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안양에 농산물과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하나의 거점지역에 불과했다. 게다가 인구 유입에 점진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별안간 자리 잡은 정부청사 때문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상징적 차원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그리됐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개발에 유물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장경호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급변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느낄 지역 향토사 유물까지 갑자기 고갈됐다”고 슬회한다.

이 때 과천문화원 직원과 2006년 문화원 부설 단체로 발족한 과천향토사연구회의 회원이 ‘사람의 힘’을 보여줬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개발에 허물어지는 고가(古家)와 각종 건물에서 유물 건져 올리기 작업을 진행, 과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적 측면에서 가치 높은 유물을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장을 뒤지고 개인 소장자를 찾아 기증받기 위해 뛰어다녔다. 현재 과천향토사료관의 소장 유물은 2만여 점에 달한다.

조선시대 과천현에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흘강 합격증서 양식지, 한말 때의 나무로 만든 교지함, 과천의 옛 거리와 농사철 풍경을 촬영한 사진, 과천 지역



농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농기구, 일본에 맞서 산과 땀감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역사의 증거물인 ‘청계산식림계규칙’ 등이다.

또 유물 뿐만 아니라 정조의 능행 때 무동과 다리밟기로 놀던 연희 ‘과천무동답교놀이(도 무형문화재 제44호)’와 2008년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금상과 입장상을 거머쥔 경기도의 유일한 ‘과천나무꾼놀이’ 등 지역 특유의 문화도 보존 계승해 왔다.

장 사무국장은 “인사동이나 풍물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어느 집에서 어떻게 썼다는 정체성과 향토사를 담보한 역사적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과천향토사연구회를 주축으로 지난 2011년 개관한 문화원 원사에 별도의 향토사료관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끊임없이 유물을 수집해 고서는 번역하고 각 소장품의 가치를 연구 보존했다. 이를 활용해 과천 시민과 대중을 위한 기획전을 열었고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통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역 관련 사진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천문화원 사람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거친 개발 바람에 쓰러짐없이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힘을 보여줬다.

그들이 보여준 사람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화원 내 과천향토사료관 공간을 구축한 후 ‘과천사람, 역사에 길을 묻다’와 같은 상설전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문화원 소속 전문위원과 학예사가 기획한 체험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만여 점 중 겨우 150여 점을 전시할 수 있고 좁은 수장고는 이미 꽉 찬 현재 향토사료관 대신 독립 건물을 짓거나, 소장품 연구와 교육 사업 등 늘어난 전문 분야를 소화할 전문 인력 확보가 그것이다. 모두 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 확대가 절실하다.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빠른 시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희망은 지금의 과천문화원과 향토사료관을 있게 한 ‘사람의 힘’이다.

글_류설아기자 rsat19@kyeonggi.com



“조선시대 대표 청백리 정신 잇자”... 과거·현재 어우러진 ‘배움의 장’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752개의 축제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외형만으로 보면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통한 소위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는 거리가 멀다. 솔직히 실적과 과시용으로 축제를 만들어 놓고 시늉과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축제가 많다. 그래서 입맛을 썩쓸하게 만든다.





오리 이원익 선생 정신 · 성품 기려, 관료적 리더십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
 사궐장 기로연 재현 · 대동놀이 한마당 등
 시민과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그런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 청백리인 ‘오리(悟里) 이원익(李元翼 · 1547~1634)’ 선생의 정신과 인품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5월 ‘오리문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오리문화제의 주인공은 광명 출신으로 선조, 광해군, 인조 등 3대에 걸쳐 우의정과 영의정 등을 지낸 이원익 선생이다. 오리 이원익은 조선시대에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관료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관료생활을 한 시기에는 당쟁, 임진왜란, 정묘호란, 광해군의 난정,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등 외침과 변란들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요직을 맡아 국난을 잘 극복했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정치 격변 속에서도 일호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관료 생활을 했다. 집은 두어 칸의 초가였으며,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청빈했다고 한다. 정묘호란 후 인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광명시 소하동으로 내려가 말년을 보냈다.

오리 이원익은 무려 379년 전 인물이다. 목민관으로서 전설적인 인물은 맞지만 솔직히 집안 사람이나 역사가학자가 아니면 그를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이에 광명문화원(원장 이영희)은 38만 광명시민에게 광명의 역사인물 이원익을 어떻게 조명할까, 또 21세기 영혼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이원익을 어떤 인물로 재해석해서 그의 청백리 정신을 전승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올해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어울림한마당’을 주제로 잡았다. 지난 5월 9일 충현박물관에서 오리 이원익 영우(영정을 모신 영당) 참배를 시작으로 11일까지 4일 동안 광명시 곳곳에서 알차게 오리문화제를 개최했다.



오리 이원익 사상 특별 강연회, 시민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클래식 향연, 대동놀이 한마당, 가족놀이 한마당, 지구사랑 나눔장터, 시민애장품전 전시·체험 행사 등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문화제를 선보였다.

특히 5월 11일 오후 3시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서 오리문화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이원익 사궤장 기로연 재현행사’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이원익 선생이 77세 때 인조로부터 궤장(의자와 지팡이)과 약공, 선운주(임금이 하사한 술)를 받은 것을 기념해 연 잔치(기로연·耆老宴)를 재현했다. 사궤장 기로연은 관이 일품에 이르고 70세 이상된 자로 관직에 물러날 때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지팡이와 의자를 내리면서 계속 관직에 머물게 하려는 제도로 노대신에게는 최고의 영예였다. 조선시대에는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를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는데, ‘경국대전’에는 궤장을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내리는 안석(安席·편안한 의자 일명 안락의자)과 지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희 광명문화원장은 “군왕이 신하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진정한 의미는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지혜와 관료사회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덕망, 국가와 국민을 정성으로 섬기는 충성심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원로대신에게 기대한 것이었다”며 “올해 ‘이원의 사궤장 기로연 재현행사’를 통해 성품이 강직하고, 생활이 소박했으며, 맡은 일에 충실했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오리 이원의 선생의 진정성을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명문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성이 있는 오리문화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실적용, 과시용, 생색내기용 문화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광명을 대표하는 청백리 오리 이원의 정신을 고스란히 살려내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광명문화원은 큰 일을 하고 있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왕실도자 본향’ 내 고장 문화유산 바로 알기... 아이들 귀 쫓긋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을 갖고 있다. 허슬이라는 학자는 “연어는 태어나서부터 바다로 나갈 때까지의 기간에 자신이 태어난 강의 냄새를 기억하고 회유를 한 후, 그 냄새에 의존하여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연어처럼 자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과 특색을 기억하고 또 자신을 성장시킨 지역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는 비단 연어에만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다.



66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 일환 전문성 갖춘 해설사
직접 초교 방문 동영상 등 통해 수업... 애항심 쑥쑥

09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지역문화는 중요하다.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문화를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문제는 정체성, 지역의 문화적 힘, 그리고 지역 역사와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역문화 프로그램은 특별하다 할 수 있다. 광주문화원(원장 남재호)이 진행하고 있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왕의 밥그릇, 분원백자’는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롤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광주는 예로부터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땅이 넓은 고을’이라는 뜻에서 한자로 넓은 광(廣)자와 고을 주(州)자를 썼다고 한다. 광주는 민족자존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과 조선왕조 500년의 기쁨이 담긴 조선백자 본고장이기도 하다. 이에 광주문화원은 광주 지역문화유산을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인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은 지난 2011년 ‘남한산성 바로알기’를 주제로 시작됐다.

프로그램 첫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15개 학교, 45개 학급 1천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산성인 남한산성의 지역적 특성 및 역사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역사교실이 운영돼 학생과 학교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012년에는



항공 복원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반갑다 항공아’라는 주제로 진행돼 관내 33개 학급이 수업을 받았다.

프로그램 3년차인 올해는 왕실도자의 본향인 광주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왕의 밥그릇, 분원백자’를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총 15개 학교 49학급, 1천500여 명이 수혜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역사교실은 가을에 있을 청소년 문화탐방과 연계해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론뿐 아니라 실기와 현장탐방을 통해 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측의 수업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예산에 맞춰 수업을 조절하는 실정이다. 이같이 광주문화원의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강의는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역사문화연구회’ 회원들이 맡아 진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스마트폰 문화에 익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 만큼 단순한 정보 전달방식의 수업에서 과감하게 탈피했다. 강사들은 수업 교재와 퍼즐, 관련 동영상 등 필요한 교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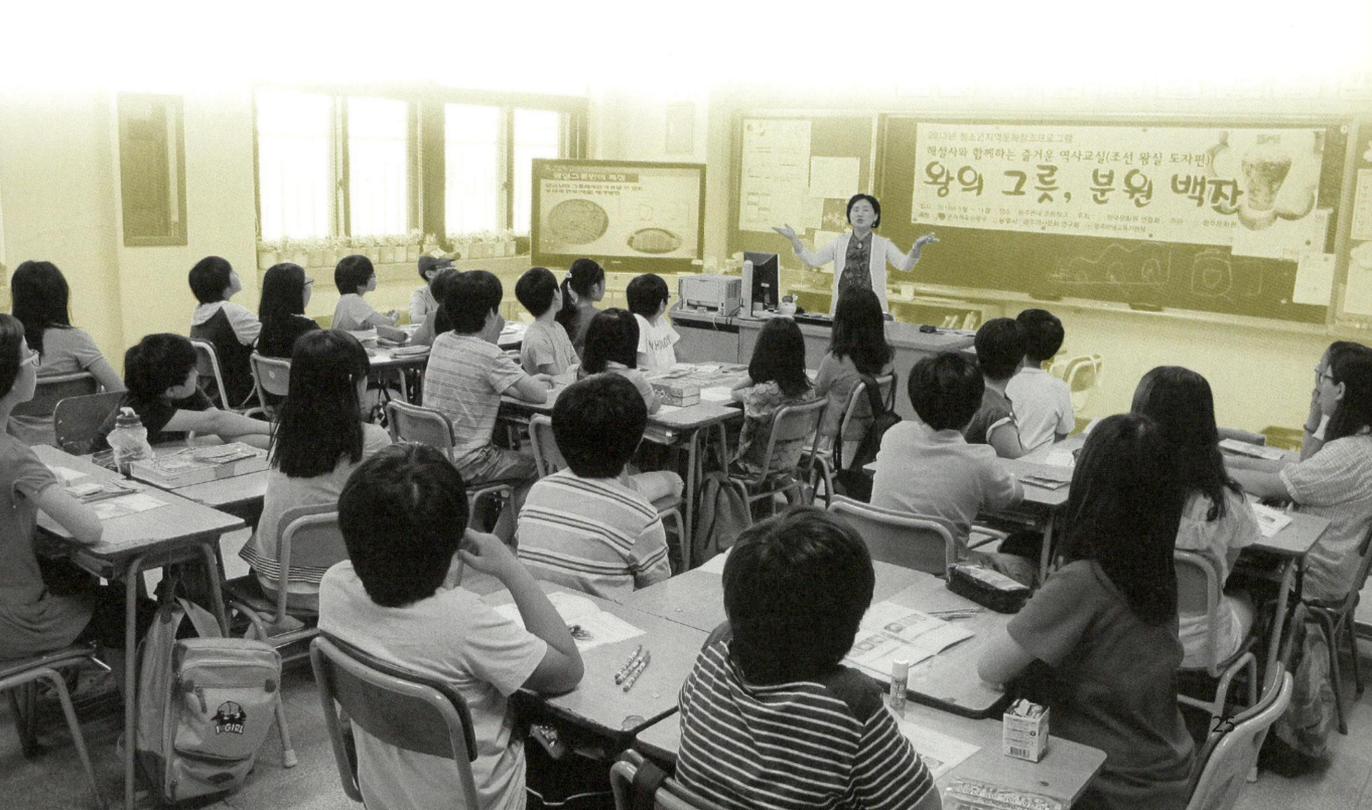
직접 제작해서 쉽고 재미있게 수업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유산과 지역 청소년들의 한데 묶어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원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일해 온 남재호 원장의 대표적인 성공작품이기도 하다.

21세기를 소위 ‘문화의 세기’라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남재호 원장은 그 중에서도 지역문화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했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광주문화원이 풍부한 지역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해설사와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교실’은 그 자체만으로 광주 지역문화의 풍성함을 이루는 큰 자원이 된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어머니 같은 푸근한 산에서... 마을·주민 무사안녕 기원

예부터 우리나라는 설날(1월1일), 삼짇날(3월3일), 단오(5월5일), 칠석(7월7일), 중양절(9월9일)처럼 양수(陽數)가 중첩된 날을 모두 중요한 명절로 삼았다.

특히 3월 삼짇날은 최고의 길수로 3이 중첩된 날이다. 그래서 음력 3월 3일은 '중삼일(重三日)'이라 하여 봄의 양기가 총만한 날로 기록돼 있다. 이를테면 '강남으로 간 제비가 중삼일에 돌아온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유리왕은 3월3일에 돼지와 사슴을 사냥해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고, 신라시대에는 매년 다례를 올렸다. 지금도 사당에 모신 조상에게 봄·가을로 시제를 지낼 때면 주로 3월3일에 춘향제(春享祭)를 지낸다. 또 삼짇날은 산신제를 지내는 지역도 많다.





지역 전통 민속 문화유산 보존·계승
16년째 양기 충만한 삼짚날 산신제 개최
샤머니즘 뛰어 넘어 마을 공동축제로 진행



지난 4월 12일(음력 3월3일) 정오,

남양주시 화도읍 천마산 관리사무소 위 소운동장에서 '제16회 천마산 산신제'가 엄숙하게 거행됐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산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남양주시도 크고, 작은 산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를 구축해왔다.

남양주시는 크게 동북부의 산지와 서남부의 분지로 구분된다. 동북지역에는 주금산(813.6m), 축령산(879m), 천마산(812m), 운길산(610.2m)과 서쪽으로는 수락산(637m), 불암산(509m)이 솟아 있다.

특히 화도읍과 진접읍 경계에 있는 천마산(天摩山)은 남양주 시민들에게 푸근한 어머니 품과 같은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천마산으로 사냥을 왔을 때 “이 산은 매우 높아 푸른 하늘에 홀(笏·조선시대에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임금을 만날 때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꽂힌 것 같아 손이 석자만 더 길었으면 가히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手長三尺可摩天).”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때부터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하여 천마산이라 불리게 됐다.

또 산세가 험하고 봉우리가 높아 조선시대에는 임꺽정이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끼정바위’로 불리는 바위가 남아있다.

현재도 천마산은 60만 명의 남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영험하고 이로운 명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천마산에서의 산신제는 과연 향토문화와 지역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닐까.



이 질문에 이용복 남양주문화원장은 “향토의 전통 민속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남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삼진날에 민속 산신제를 16년째 거행해 오고 있다”며 “이는 민속신앙이 샤머니즘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통민속 행사를 이어오면서 마을 주민의 화복 및 단결을 도모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을공동 의식의 축제로 승화되는 민족고유의 혼이 담겨 있음을 주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신제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어 온 대규모적 제천의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신인합일사상(神人合一思想)에 근거하고 있다. 산신제의 전통이 오늘날에 와 마을 또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행사로 축소되면서 본래 의미보다는 축소된 게 사실이다. 현대의 산신제는 오히려 지역민 보호와 마을 안녕 추구가 주목적이 됐다.

남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농촌과 도시가 혼재한 상태에서 읍·면·동 각 마을마다에는 산신제나 성황제 터주 고사 등을 지내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연구, 계승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양주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적 신화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원초적 제의성(祭儀性)에다 마을 주민



의 공동체의식을 조성해 주는 산신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천마산 산신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박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독립성, 이합집산을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 천마산을 매개로 한 향토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 서구화와 궤를 같이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남양주시도 급격한 도시발전과 팽창 속에서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가운데 삼진날 진행되는 남양주시 주민들을 위한 천마산 산신제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과거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새로운 미래도 결국에는 과거를 통해 만들어지고 미래의 정답은 과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글: 강현숙기자 mami209@kyeonggi.com



수백년 전통 뿌리 찾기... 성남향토사 연구·교육 선구자로 '우뚛'

과거는 곧 미래다. 수많은 사람의 삶을 기록한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공부의 중요성은 여기서 출발한다. 특정 지역과 구성원을 기록한 향토사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민이 주체가 되기 위해, 서울 외 변방 도시의 하나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육마저 급격하게 줄어든 현실에서 향토사 교육과 연구 흔적은 찾기 힘들다. 향토사 연구와 교육의 선구자로 떠오른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의 '성남학 아카데미'를 주목하는 이유다.





도시개발로 40여년간 급격한 변화, 수백년 전 유서 깊은 역사 희미해져
인문학 강의·현장답사 애향심 길러 수강생들 문화해설사 등으로 활약



사실 성남시와 향토사의

조합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성남시의 발달 과정과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 때문에 그러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도시개발에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커녕 그 뿌리마저 사라졌을 것 같은 도시에서 향토사 붐이 일고 있다니, 왠지 부조화스럽다. 성남시는 서울시가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해 철거민의 이주정착지로 선택한 도시였다.

1969년 5월부터 1970년 6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서울 청계천변에 정착했던 도시저소득층이 대거 이주했다. 짧은 시간 대규모로 이뤄진 도시 개발로 서기전 18년 백제 시조 온조왕이 도읍지로 정한 하남위례성의 옛터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지역으로서의 역사는 희미해졌다. 도시기반시설조차 형편없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이주민에게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을 터.

성남시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는다. 1989년 4월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 이듬해부터 허허벌판에 세워진 분당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그들은 성남시가 아닌 ‘분당시’를 요구하며 지역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40여 년간 성남시처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급격한 변화를 겪은 도시도 드물 것이다.

어쨌든 성남시는 두 차례의 개발붐에 빠르게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거꾸로 이 변화가 아킬레스건이 됐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성남학 아카데미가 설립된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당시 성남문화원은 방방곡곡에서 모여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 없는 지역민에게 수 백년전 성남의 역사와 훌륭한 인물을 알려 ‘개발 전부터



이미 살기 좋은 도시'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붓글씨나 그림 그리기, 문예 강좌 등 보편적인 문화예술강좌 대신 요새말로 '듣보잡'인 성남학을 개설했으니, 예산 확보나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은 뻔했다.

첫 해 성남학 아카데미 대신 향토문화 아카데미로 명칭을 붙였다가 입소문에 수강생 모집이 원활해지면서 비로소 성남학으로 개명한 일레가 방증한다. 교육 대상은 퇴직 공무원과 교사 등 오피니언 리더로 설정했다. 오피니언 리더가 넓게 지식의 그물망을 펼쳐 '성남학'이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타깃 설정은 명확한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성남학 수강생들은 초등 교과 강사나 문화해설사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믿을만한 입소문에 강의 인기도 높아졌다. 첫 해 출석인원이 고작 10명이었던 성남학 아카데미는 개발로 성남에서 갑자기 충남 당진으로 옮겨진 무덤을 찾아가는 등 다양한 현장답사와 지역민의 자긍심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매번 신청자가 몰려 정원 20명인 강좌에 60명까지 등록한 상태다. 특히 올해에는 구도시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현재 3개월 과정으로 1년 내내 진행 중이며, 분기마다 12명의 전문강사가 참여한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 지역민이 뿌리를 찾음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 공동체 의식 등을 높이며 나아가 나라의 선진화를 이끄는 구성원을 양성



하겠다는 당초 기획 의도 말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성남학 교재 제작, 다양한 현장답사, 강사로 인상을 통한 강사진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원이 갈망하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개설과 청소년 대상 향토사 강의 확대를 위한 선행 조건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역민이 주체가 돼 지역을 살려야 한다. 이 공허한 소리가 향토사를 통해 현실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단초가 되기를 응원해 본다.

글_류설아기자 rsal19@kyeonggi.com



주민들의 안녕 · 화합 기원... 수백년 이어온 ‘마을 대동제’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1993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뒤 프랑스에 돌아가 동료 도시계획가에게 서울의 5천분의 1 축적 지번약도를 보여주자 반응이 이랬다.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는 정말 대단하군!” 그들이 군사기지로 오인한 곳은 반포 아파트 단지였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모든 계층이 선망하는 모델이자 이상이 되었다. 동시에 우리의 아파트 문화는 70~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지별 건설방식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 커뮤니티 단절,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를 잉태했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의 구축이 절실하다.





최소한 500년의 역사 자랑...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 기원
탄탄한 '공동체 정신' 담겨 있어 무형문화재 지정 위해 노력



공동체문화가 숨 쉬는 지역사회가 도래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군자봉성황제'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하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기 보다는 그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만하다. 과거로의 회귀(回歸)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탄탄한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

경기도 시흥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군자봉 성황제'가 11월 5일 오전 11시 군자봉 정상 군자성황사지(시흥시 향토유적 제14호)에서 열렸다. 군자봉성황제는 그 역사가 천년 이상된 시흥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이다. 군자봉(해발 199m)은 행정구역상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이 산에서 성황제를 지냈다는 것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이미 나와 있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봉 성황제는 조선 초기 국가의 공식 기록물에 존재가 언급될 정도로 이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졌다. 최소한 500년 이상된 전통 있는 성황제이다.

하지만 군자봉에서 모시는 성황신(城隍神)이 김부대왕, 즉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에 '성황신앙'이 전래된 고려시대에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후 경기지역 최대의 호족세력이 된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 일가를 모시는 신앙체계였던 것.



성황신은 한 고을을 수호하는 지역 수호신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이래 고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성황신께 빌어 왔고 그렇게 비는 행사가 바로 성황제다. 군자봉 성황제는 군자봉 정상에 성황당을 지어 경순대왕을 모셔놓고 매년 선달(음력 12월)에 당주와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제를 지낸 후 경순대왕을 마을로 모시고 내려와 집집마다 유가를 돌고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이 되면 다시 군자봉 성황당에 모신 의례다. 그해에 농사의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3일에 풍작과 마을 안녕의 편안함을 감사드리고 매년 편안하길 기원하는 마을대동제로 이어졌다.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군자봉 성황제는 고려시대 이래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을 계승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군자봉성황제는 과거 시흥의 전역과 수원, 안산까지 유가를 돌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 굿이었으나 현재는 시흥시 구준물 일대에서만 이뤄지는 무가의례로 축소된 상황이다.

성황제의 의례 순서는 당주(堂主) 고현희와 주민들이 봉안한 서낭기를 군자봉 정상으로 옮기는 절차부터 시작했다. 부정거리 → 산불사거리 → 산신거리 → 별상거리 → 신장거리 → 대감거리 → 창부거리 → 뒷전거리의 순서로 굿이 진행됐다.



이러한 형식을 놓고 성황제 자체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허나 이날 군자봉 정상에 오른 시민들의 마음은 매한가지. 자식 건강과 가족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의 지역발전이었다. 주민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박한 기원과 지역화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종의 ‘축제’라는 관점에서 성황제를 즐기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군자봉 성황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1993년 제8회 경기도민속예술제경연대회에 출전해 ‘발굴상’을 받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흥시민속예술로서 지정받기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 2004년 10월 군자봉 성황제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그러한 사전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1월 ‘군자봉 성황제’ 단행본을 민속원에서 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자봉 성황제는 시흥시민들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앞으로도 향토전통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곧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학교 밖 선생님과 문화유적 배우며... 자공심 쑥쑥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문화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얽히며, 지역민의 요구 역시 다양해진 시대에 당연한 변화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원이 지역의 전통문화역사 '연구가(研究家)'에서 '선생(先生)'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산문화원(원장 김봉식)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사탐방 아카데미'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정수(精髓)다.





해설사들 눈높이 현장 교육 강화,
 초교 3학년 교과 '내고장 알기' 연계 체험
 시대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 노년층 타 지역과
 '젊은 문화원' 차별화



“책에서만 보고 이름만

들었던 '별망성지'가 이렇게 안산 공단 내 도로변에 존재할 지 몰랐어요. 교과서에 지역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가 나오지만 다 가볼 수 없는게 현실이잖아요.”
 능길초등학교(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윤선희 3학년 담임교사의 역사탐방 아카데미 체험 소감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 윤 교사가 가르치는 30여명의 3학년 학생이 한 버스에 올라타 별망성지와 성호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등을 답사했다.

하지만 이날 이들을 가르치고 인솔한 것은 담임이 아니다. 안산문화원의 역사탐방 아카데미를 통해 배정된 전문 해설사가 그 역할을 맡았다. 안산문화원은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 '내고장 알기'와 연계한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신생 도시인 안산시의 어린이들이 애향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존의 3학년 교과와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문화원은 교과서에 등장하고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6개 답사 코스를 설정, 각 학교별로 2개 관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알 수 있는 기념관인 '성호기념관', 식민지 수탈에 피해를 입은 농촌사회의 부흥을 위해 농촌계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를 기념한 '최용신기념관',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충신과 효자들의 기념패와 정려(旌閭)를 모신 '오정각'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답사 코스다.



또 임진왜란 때 순국한 김여물(1548~1592)의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조정에서 하사한 '사세충열문', 조선시대 해안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성 '별망성지', 조선시대 안산의 관아 터와 고을 읍성이 있는 '안산읍성' 등도 있다.

모두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안산 특유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점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문화원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안산향토사박물관'이 기본 답사 코스다.

이 같은 총 7개 답사 코스를 설정한 안산문화원은 지역 내 박물관과 기념관 등에서 각기 활동하는 해설사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23년간 버려지는 안산의 유물을 수집하며 안산향토사박물관 건립에 힘을 쏟았던 이 현우 사무국장이 맡았다. 해설사들에게 코스별 중요한 역사적 지식과 초등학생 맞춤형 교육법을 소개하며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시간이다.



초등학생들의 ‘학교 밖 선생’이 되는 해설사 20여 명은 현재 안산의 각 기념관과 박물관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경력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이들은 역사탐방 아카데미를 신청한 관내 학교 일정에 맞춰 일일 선생으로서 어린이들의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문화원들이 운영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나 해설사 대부분이 노년층인데 반해, 40~50대가 대부분이다. 천방지축 어린이들을 최소 3개 현장을 이끌고 다니며 집중력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체력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안산문화원은 초등학생들이 역사탐방 아카데미를 통해 방문했던 문화원을 친근하게 여겨 재방문하는데다 프로그램 운영자들 역시 활동적인 연령층이어서 젊은 문화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문화원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노인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루하고 지루하다는 젊은층에 편견에 자유롭지 못한 여타 문화원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안산문화원의 역사탐방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어르신’이기보다 ‘젊은이’이기를 자처하는 등 시대적 변화 요구에 발 빠르게 응수하려는 적극적인 몸짓이 읽힌다.

글_류설아가자 rsat19@kyeonggi.com



우리 역사 바로알기... 나이 잊은 향학열 '후끈'

대학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입학과 동시에 토익과 자격증, 해외연수 등 마치 스펙쌓기 배틀현장으로 변질된 한국의 일반 대학과는 궤를 달리한다. '작지만 큰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대학이다.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다. 양주문화원(원장 박성복) 부설 학교다. 강의가 재미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입학 경쟁률이 꽤 높다. 양주를 비롯해 인근 동두천, 포천, 의정부, 저 멀리 부천, 수원, 서울 등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론 · 현장답사 학년별 맞춤형 교육, 재미있는 강의...
 포천 · 서울 · 수원서도 원정
 주1회 이론강의 · 주1회 현장답사, 20~30만원대 저렴한 등록금



이처럼 역사 공부를 하고 싶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은 4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포진해 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렇게 소처럼 일만 했을 세대다. 나이 들어 몸도 여기 저기 고장나 성치 못하지만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 입학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평생학습 롤모델이 되고 있는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전공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 일명, ‘역사대 학교 강의듣고학과 현장보고전공’이다. 현재 1학년 43명, 2학년 45명, 3학년 24명, 연구반(심화과정) 25명이 재학 중인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책상에 앉아서 역사 기초를 배우는 강의식 수업 1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역사 안목을 키우는 현장 답사 1회 이렇게 이론교육과 답사를 병행하고 있다.

1학년은 인류의 발생과 석기문화를 시작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역사를 공부하고 회암사지, 권율장군묘 등 양주의 주요 역사문화유적과 보은, 경주, 파주, 수원 등지를 답사한다. 2학년은 신라, 고려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이와 관련된 남원, 구례, 남양주, 평창, 공주, 부여, 남양주 등지를 둘러본다. 3학년의 경우 총 10회 강의와 10회 답사를 기준으로 진행돼 가장 타이트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조선의 건국부터 조선 문화, 조선의 멸망, 한국 근대화, 한국 전통 종교 등 방대한 역사를 공부하게 된다.



연구반은 고양, 통영·여수, 옥천, 서산, 양양, 영주 등 총 6회 답사로 진행된다. 이처럼 양주역사문화대학은 맞춤형 교육으로 벌써 13년째 순항 중이다. 무엇보다 학년별로 20만원~30만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

당초 양주역사문화대학은 2001년 양주문화원에서 민요, 서예를 배우던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200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부부학생도 생겼다. 지금은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이 7:3 정도 된다.

문화원은 주1회 장거리 현장답사가 있는 것을 감안해 70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었다가 “배움에 나이 제한이 어디 있냐?”는 거센 항의(?)가 받아 결국 나이 제한도 없었다. 2학년에는 김용무·이현기 어르신께서 78세 최고령 학생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학구열을 자랑하고 있다.

홍정덕 지도교수 1학년부터 연구반까지 모든 수업과 현장답사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교수 1인은 바로 거침없는 입담과 재치 있는 강의로 좌중을 압도하는 홍정덕 현 한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무부장이다.

홍 지도교수는 중간·기말고사 문제나 학점 줄 걱정 없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수업할까를 고민한다.

홍정덕 교수는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일수록 올바른 역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역사 교육이 홀대받아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역사 학습 태만은 역사 인식의 부재를 낳아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께서 역사를 배우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꽤나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강의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주역사문화대학은 이래저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껏 지역 문화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역사를 주제로 한 대학을 운영해 온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양주역사문화대학 어르신들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있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여주문화원

훈민정음 반포 567돌 기념 한글날 행사

한글날 공휴일 부활... '문화국경일' 위상 높여 세종대왕님 웃는다

올해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의 경사이다. 국보 70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으로 꼽는 '한글'.

그런 가운데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글날',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세종문화큰 잔치' 행사를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 여주문화원(원장 김문영)의 노력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훈민정음 반포 566돌 한글날 기념식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여주군  YEOJU-GUN 주관 : 여주문화원  YEOJU CULTURAL CENTER



66

‘세종문화 큰잔치’…세계인의 축제로,
 궁중정악 재현 · 한글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
 ‘한글! 한류로 등극하라’…‘문화국경일’로서의 한글날 위상 높여

99

조선조 제4대

세종대왕(1397~1450)은 즉위 25년이던 1443년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해 1446년 반포했다. 고른 인재 등용, 유교정치 구현과 함께 민족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집권한 세종대왕이 안장된 곳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의 영릉(英陵)이다. 영릉(寧陵·효종과 인선왕후의 무덤)과 함께 지난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195호로 지정된 이 곳에는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6)도 합장됐다.

1962년 10월 9일 한글반포 516주년을 맞는 한글날, 경기도와 재건국민운동경기도지부, 그리고 예총경기도지부의 공동 주체로 제1회 ‘세종문화 큰잔치’가 열렸다. ‘세종문화 큰잔치’는 경기도 나름의 문화행사를 모색해 오던 중 마침 세종대왕의 능묘를 모신 영릉이 여주에 위치한 점에 착안해 이를 토대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자 행사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종문화 큰잔치’는 경기도 단일행사로만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난립해 경기도 주종행사로서는 문제가 생겨났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동일행사에 재정적 손실과 행사의 특성이 없어진 나머지 문화제로서의 가치가 경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전행사에만 주력하다 보니 행사의 규모가 축소됐고 마침내 중단되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1976년 제15회까지 이어왔지만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영능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1977년부터 ‘세종대왕숭모제전’으로 명칭을 바꾸어 문화공보부에서 주최를 하면서 ‘세종문화 큰잔치’는 15년을 끝으로 자취



를 감추게 됐다. 그러나 ‘세종대왕숭모제전’은 다례행사로 문화제와는 동떨어진 행사였으며, 일반인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아 문화행사의 가치가 없었다.

5년이나 중단됐던 ‘세종문화 큰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1981년 10월 9일. 당시 여주문화원의 노력과 여주군의 지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86년 제21회 ‘세종문화 큰잔치’를 여주문화원 주관으로 거행함으로써 향토문화 행사로서 자리를 굳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주문화원은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대왕릉과 세종로 일대에서 ‘한글! 한류로 등극하라’를 주제로 훈민정음 반포 567돌 기념 한글날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표 문화유산이자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된 한글의 가치를 드높이고 ‘문화국경일’



로서의 한글날의 위상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양시키는 물론 다문화 시대에 한글날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궁중에서 벌어지던 궁중정악(전통악기 공연) 재현 △567돌 한글날 기념식 △훈민정음 서문 봉독 △궁중정재(궁중무용) 재현 △세종합창단 한글날 노래 제창 △한국 유일의 여성줄꾼 박선미 명인의 전통줄타기 공연 △아름다운 한글 '시' 낭송회 등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공휴일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한글 탁본 체험 △예쁜 한글 티셔츠 만들기 △한글 가훈쓰기 △설탕 공예 '맛있는 한글날'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9일 오후 3~4시 세종로 상설무대에서 열리는 가족 뮤지컬 '세종대왕이 빨났다'와 오후 4~5시 전국 각 대학 패션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독창적인 한글의상을 볼 수 있는 '한글 패션쇼'는 빼놓지 말아야 할 대표 행사다.

글_김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현대를 품은 ‘조선왕조 500년’... 축제로 즐기는 이색 무대

연천군에는 영화관이 없다. 영화 관람은 가장 손쉽게 접하는 문화생활 중 하나지만 연천군민들에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12년 한 해 동안 영화 관람객이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연천군민에게 먼 나라 이야기일 뿐. 연천은 수도권 최북단지역으로 휴전선을 32km 접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게다가 지난 60년 동안 수정법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수도권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화원-극단 '연천' 공동 지역의 인물·역사극 시리즈 제작 연천의 대학자·정치가·예술가 미수 허목 선생의 삶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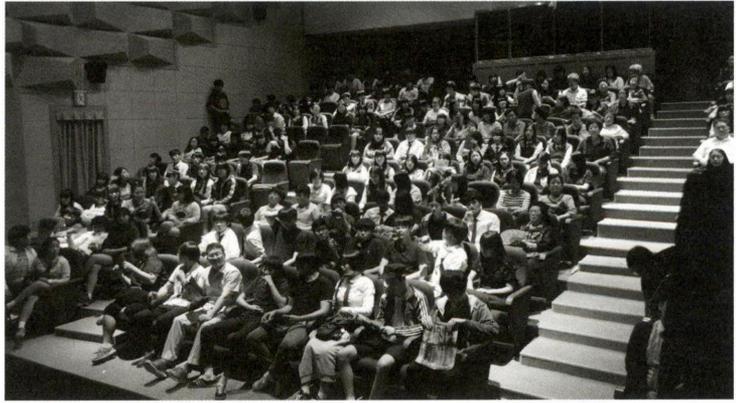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외부인들은 연천을 마치 문화의 뿌리가 없는 도시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연천문화원(원장 이경순)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문화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고, 단절된 역사인물을 재구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연천의 대학자이자 행정가, 예술가, 정치가였던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년) 선생을 기리는 '제1회 미수문화제'를 개최해 지역 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연천문화원이 올해는 연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관 하나 없는 연천군에서

연극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연천문화원은 극단 '연천'과 함께 조선왕조의 재미있는 역사이야기와 연천의 역사적 인물을 연극작품으로 제작해 시리즈 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9월 11~12일 양일간(오후 2·4시) 연천수레울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연천군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역사와 연극이 결합한 축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극을 선보이는 차원을 넘어 연천문화원 상주 예술단체인 극단 '연천'의 정기공연으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눈에 띈다. 극단 '연천'이 주최하고 연천문화원이 주관, 연천군과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에는 '뒤주속의 천국', '대왕의 문자', '미수, 은거당에서 붓으로 말하다' 총 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우선, '뒤주속의 천국'은 1749년 사도세자가 영조의 건강 때문에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사도세자와 영조를 이간질하는 노론과 정순왕후에 의해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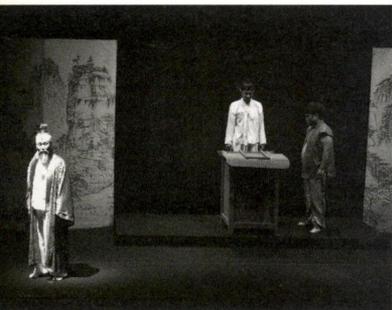
죽게 되는 스토리를 각색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떠나 정치권력이 균형을 잃게 됐을 때 생기는 비극상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대왕의 문자’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관한 스토리다.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훈민정음편찬을 책임졌던 예조판서 정인지와 훈민정음 제정에 끝까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최말리의 극한 대립 속에서 한글 창제의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역사연극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미수, 은거당에서 붓으로 말하다’다. 치열한 당쟁에서도 선비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미수 허목 선생의 삶을 조명한다. 권력의 집행자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임금을 보필했고 늘 군덕(君德)과 시정에 대한 의견을 올려 정치가 바로 되게 한 허목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조선 중기에 정승을 지낸 우암 송시열과 허목은 당쟁이 심했던 당시에 권력투쟁을 벌인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의 우두머리였다. 연극은 이 둘의 치열했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주목한다.

무엇보다 ‘동방의 제1인자’로 불렸던 전서체의 주인공이기도 한 허목 선생이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 소재한 ‘은거당(연천군 향토문화재 제 14호)’에 칩거하면서 지인들이 청해오는 묘비문이나 비문 등을 써주고 시와 글을 쓰면서 보낸 말년을 통해 그의 인생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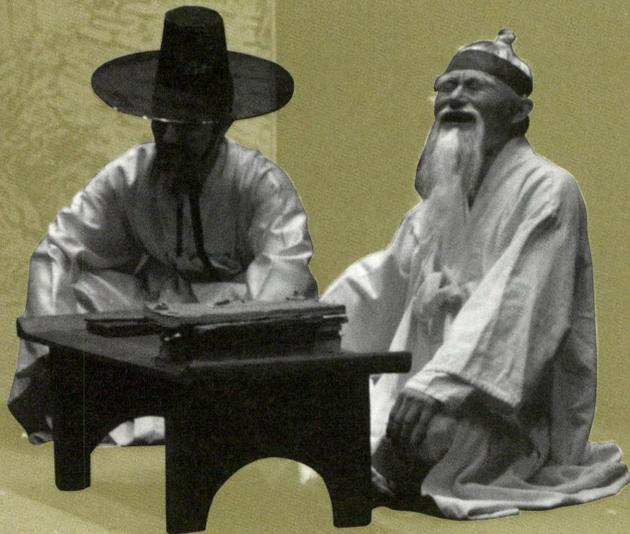
이처럼 세 작품은 영조vs사도세자, 정인지vs최말리, 허목vs송시열의 극한 대립되는 과거의 역사인물을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인물간 대립 속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역사이야기와 인간 내면의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이번 연극 시리즈의 특징이다.

이번 연극은 박기선이 연출하고 문석희, 이성주, 도창선, 김상현, 김진일, 최정숙, 김애실, 안명주, 안영일, 김수정 등의 30~40대 쟁쟁한 중견배우들이 출연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인다.

문화원과 지역극단이 힘을 합쳐 처음으로 연극무대를 선보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장 큰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래도 2013년 경기문화재단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앞으로 돈 걱정없이 탄탄하게 성장해 연천군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 극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극단 '연천'의 김탄일 대표와 연천문화원 이준용 사무국장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에 아이들 눈망울 ‘초롱초롱’

요즘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시대다. 그 뜻을 살펴보면 ‘story’와 ‘tell’과 ‘ring’의 합성어로 옥스포드 영어대사전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이야기를 구성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꿈과 감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설득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 지역문화유산이다. 지역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의 만남은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산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발굴되고,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파주문화원(원장 우관제)은 기나긴 생명력을 지닌 옛 이야기로 파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지역 인물·역사·설화 등 동화구연 형태로 각색해 들려줘
‘찾아가는 문화교육 강좌’ 일환으로 2011년부터 3년째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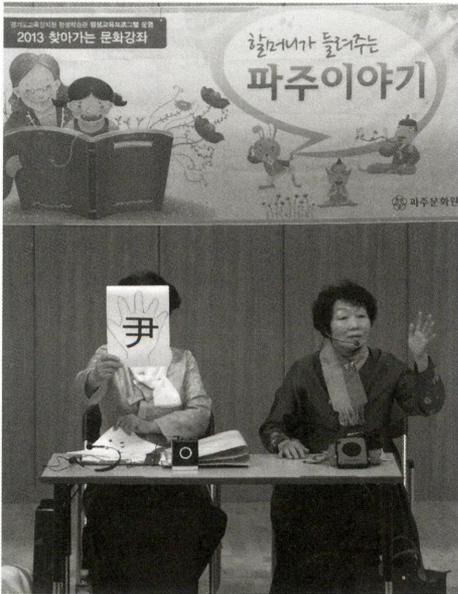
요즘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이전의 **지역문화**, 지역인물, 지역이야기를 잘 모른다. 관심분야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던 옛날 얘기는 그야말로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문화원이 어린이들에게 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문화교육 강좌’는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파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문화교육 강좌’의 대표 브랜드,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는 스토리텔링 시대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까지 총 40여 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파주 지역의 위인과 관련된 전설과 지명유래 등을 동화구연 형태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통놀이 수업은 ‘뽕’이다. 게다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울곡문화제’에서 파주 관련 설화그림을 바탕으로 ‘이야기 그림전’도 개최해 왔다. 3년차를 맞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가 파주문화원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할머니 스토리텔러의 힘이 컸다. 유진경(69)·운영자(74) 어르신은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4~5년간 동화구연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인형극 공연에도 실력을 인



정말았다. 지역 설화나 이야기를 각색하고 직접 수업 자료까지 준비하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며 열정적인 수업 매너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파주는 통일 한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오랜 역사의 도시인만큼 큰 인물이 많이 고장이 바로 파주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정치가 율곡 이이(李珥, 1536~1584), 청백리의 표상이자 명재상으로 알려진 방촌 황희(黃喜, 1363~1452), 고려시대 여진 정벌의 명장 문숙공(文肅公) 윤관(尹瓘, 1040~1111),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대명사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성리학자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 등 한국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위인들이 바로 파주와 함께 하고 있다.



10월 19일 오전, 파주시 운정초등학교 시청각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진경·윤영자 어르신이 정감 어린 목소리로 파주의 옛날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바쁘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운정초교 2학년 어린이 137명은 율곡 이이 선생을 포함 파주의 대표적 선현인 방촌 황희 정승과 윤관 장군 '파주3현'의 이야기와 설화 등을 경청했다. 동화책을 통해 율곡 이이와 황희 정승에 대해 친숙하게 느낀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듣는 중간 중간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준희(운정초교 2학년 4반) 어린이는 “예쁜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려준 황희정승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수많은 개인들의 짧은 인생이 모여 큰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조우하고 대화의 장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자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문화원은 이야기의 힘을 믿고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힘을 키우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2013 빛아기는 문화강좌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파주문화원





‘제2의 한석봉’ 꿈꾸며... 묵향에 취하다

‘글씨체’에는 그 사람만의 정신자세와 내면이 드러난다. 이것은 비단 서예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른바 ‘악필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차분히 앉아서 노트에 글씨를 쓰는 대신 컴퓨터 앞에서 ‘방가방가’, ‘짱’ 등의 채팅용어를 사용하며 자판 두드리는 것에 훨씬 익숙한 학생들. 또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톡,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성인들의 언어파괴도 줄어들기는커녕 외려 심화되고 있다. 언어와 문자생활에 있어서도 속도와 편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에 “내가 바로 한석봉”이라며 일필휘지의 붓질을 자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서예인 250여 명 기량 겨뤄, 일반부 대상에 수원 김범근씨 영예 국악 혼성그룹 ‘두들쟁이 타래’ 공연, 가래떡 썰기 명인대회 등 큰 호응



조선 중기 가평군수를 지낸

한호(韓濩) 선생(본명 석봉, 石蜂 1543~1605)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열린 ‘제14회 석봉 한호선생 전국취호대회’가 10월 13일 일요일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서예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평군체육관에서 열렸다.

석봉 한호는 추사 김정일과 조선시대 2대 명필가 중의 한 명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석봉 선생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특히 보물 제1659호로 지정된 한석봉 ‘천자문(千字文)’은 선조 16년(1583)에 처음 간행된 이후 왕실과 관아 사찰 개인에 의해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조선시대 천자문 판본 가운데 가장 널리 전파돼 초학자가 한자와 글씨를 학습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제2한석봉’을 꿈꾸며 진한 묵향(墨香)으로 붓글씨를 써내려가는 현장은 그야말로 진 풍경을 이뤘다. ‘서예인들의 꿈의 향연’으로 자리 잡은 ‘제14회 석봉 한호선생 전국취호대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2006년생 최연소 참여자 고승민 어린이부터 1926년 최고령 어르신까지 이 향연이 전국 서예인들에게 꿈의 향연임을 증명해보였다. 참가자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대전, 인천, 강원, 전북, 경남, 경북, 충북 등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대회에 참가했다.

같은 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상과 예술정신을 기리는 '24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회화대회'가 충남 예산군에서 열려 예년보다 참가자가 줄었지만 어느 정도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회화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만18세 이상)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문과 한글, 문인화 등 3개 부문에서 제시된 명제를 가지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김기욱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발표한 결과, 김범근(33·수원 영통)씨가 영예의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차지했으며, 부상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중·고등부와 초등부에서는 김소진(춘천여중 3년)양과 임준형(풍천초교 5년)군이 대상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상금 150만원,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올해 대회는 단순한 휘호대회를 뛰어넘어 축하공연과 이벤트마당이 마련돼 있어 대회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했다.

대회 참가자와 가족, 가평군민을 위해 △가래떡 썰기 명인선발 △찾아가는 국악 및 민요공연 △석봉한호선생 OX퀴즈 △보물찾기 등이 당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특히 '가래떡 썰기 명인대회' 등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회는 참가 어머니에게는 옛날 가래떡 썰기 추억을 되살리고 자녀들에게는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가족 간의 화합,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됐다. 5인1조로 경합을 벌일 대회는 시간 내에 가장 예쁘고 많은 양의 떡을 썬 부모들에게 가평밤을 부상으로 선물했다.

이와 함께 일반부 참가자들은 참가비 2만원을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전액 교환해 잣, 포도, 사과 등 신선한 가평 농특산물을 현지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전국 서예 애호가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행사였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평가다.

글_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연지곤지 짝은 외국인 신부 푸른 한복 빼입은 신랑, 늦깎이 ‘백년가약’ 웃음꽃 활짝

‘결혼식’은 사랑하는 남녀가 앞으로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친지나 친구들 앞에서 서약하는 의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따라서 대개는 일생의 단 한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 적잖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여주기식의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결혼식 사진 하나 없이 사는 부부들이 참 많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더 하다. 추석을 앞두고 고양시에서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





다문화부부 여섯쌍 무료 합동결혼식 올려
 “행사 하나하나에 의미… 오래 기억될 것”



외국인 100만 시대. 혈통주의를 고집해 왔던 한국은 21세기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불편을 주어서는 함께 살 수가 없다. 조출한 전통 혼례식을 통해 ‘다문화가정 끌어안기’를 시작한 고양문화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고양시 다문화가정 부부 6쌍이 최근 가족·친지 등의 축복 속에 합동결혼식으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고양문화원(원장 방규동)은 고양시 지원으로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고양문화원 1층 강당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합동 전통혼례’를 마련했다. 문화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가족의 끈을 단단히 묶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합동결혼식을 주관하게 됐다.

첫번째 주인공들은 오병조-안수영(베트남), 이정규-아멜리아비가마드(필리핀), 채월희-요시다 에미코(일본), 홍우성-고가 후끼꼬(일본), 박호영-이은주(필리핀), 박성식-이또 기누에(일본) 부부.

본식에서는 혼례집례관의 주도로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가마를 타고 등장했으며 신랑이 기력아비와 함께 신부 집에 도착해 기러기를 드리는 전안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주고받는 교배례, 술잔을 주고받으며 부부가 되었음을 서약하는 합근



레 및 폐백 등의 혼례순서가 진행됐다. 특히 폐백실에서 외국인 신부들은 집안 어른들이 던져주는 밤과 대추를 치마 폭에 담는 것이 마치 놀이처럼 느껴졌는지 갑자기 웃음보를 터트렸다.

6쌍의 부부는 전통 혼례식이 처음인지라 모든 것이 서툴었지만 그래도 실수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었다.

러브샷(?), 대추나뉘먹기, 엮어주기 등 부부 사이의 정을 돈독히 하는 행사를 마치고서야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됐다. 신부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편안한 미소를 내비쳤다. 신랑들은 그런 신부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방 싱글벙글 이었다.

이날 혼례식 내내 함박웃음을 짓던 채월희씨(53), 요시다 에미꼬씨(54·일본) 부부는 연상연하 커플이다.

채월희씨는 “아내를 만나고 여태껏 약혼식이 전부였다. 항상 괜찮다는 아내를 보며 항상 미안했는데 문화원에서 전통혼례를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이거다 싶었다. 25년 만에 전통혼례를 올려 한이 풀리는 기분”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전통혼례행사와 축하선물까지 마련해준 문화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요시다 에미꼬씨는 “현대식 혼례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행동, 행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며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고 잘살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정규(55)·아멜리아비가마드(54·필리핀) 부부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올려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했다.

부모님의 ‘늦깎이’ 결혼식을 멀리서 바라보던 딸 이채은씨(23)는 “아빠와 엄마가 아름다운 전통의상을 입고 혼례를 하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다”며 “늦게나마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서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따라 아빠, 엄마가 더 잘생기고 더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방규동 고양문화원장은 마치 딸을 시집보 내는 마음으로 행사를 조용히 지켜봤다.

호화 결혼식이 넘치는 세상에서 고양문화원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족의 소박한 결혼이 준 감흥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시민들에 의해 되살아난...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숨결

19만 구리시민은 조선시대 왕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리시에는 조선시대 초대 국왕이었던 태조 이성계 등 임금 아홉 명이 묻힌 국내 최대 규모의 왕릉군, '동구릉'이 있기 때문. 동구릉은 500여 년 간에 걸쳐 조성되었기에 동구릉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선 500년 역사의 부침을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09년 6월 30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세계문화유산대회에서 동구릉을 포함한 조선왕릉(40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태조 이성계 등 아홉 임금 문헌 국내 최대 규모의 왕릉군 '동구릉'
 시민 참여 어가행렬 재현 백일장 · 전통 성년례 · 민속공연 펼쳐져



문화유산은 한 시대정신의 결정이요, 역사의 거울이다. 우리에게 지난 일을 알려줄 뿐 아니라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바로 문화유산인 것.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의지와 향토의식, 그리고 역사관을 담은 구리 동구릉문화제는 구리시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동구릉(사적 193)은 59만여 평의 광대한 숲에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을 비롯해 제5대 문종과 그 비 현덕왕후의 능인 현릉(顯陵), 제14대 선조와 그 비 의인왕후, 계비 인목왕후의 능인 목릉(穆陵), 제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인 송릉(崇陵), 제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인 휘릉(徽陵), 제20대 경종의 비 단의왕후의 능인 혜릉(惠陵), 제21대 영조와 그 계비 정순왕후의 능인 원릉(元陵), 제24대 헌종과 그 비 효현왕후, 계비 효정왕후의 능인 경릉(景陵), 제23대 순조의 원자인 문조와 그 비 신정익왕후의 능인 수릉(綏陵) 등 9개 17위의 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열리는 것이 바로 구리 동구릉문화제다. 2013년 동구릉문화제는 5월 11일 오전 11시 구리역광장과 동구릉에서 열린다. 동구릉문화제는 형식적이고 관 중심의 보여주기식 여타 문화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주요 행사로 어가행렬 재현, 줄타기 전통 민속공연, 제23회 구리시민백일장, 전통 성년례 재현 등이 펼쳐진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관하는 2013 어가행렬은 300



여 명이 참여해 구리역 광장에서부터 동구릉까지 1km가 넘는 구간을 행진한다. 올해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격쟁(擊錚)’과 ‘길놀이’가 추가됐다. 격쟁은 조선시대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국왕이 거동하는 때를 포착해 징·팽과리·북 등을 쳐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자신의 사연을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행위로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희단 팔산대의 진도북춤과 판굿으로 어깨가 들썩거리는 감동의 무대를 준비한다.

제23회 구리시민 백일장은 1천200명의 참가자와 함께 동구릉 원릉에서 개최되며 글짓기, 그림, 서예, 사진, 비디오의 5개 분야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어가행렬 직후에는 동구릉의 재실에서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의 대역을 맡았던 줄타기의 명인 권원태씨가 출연,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 준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구리문화원 예절교육연구회 주관으로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대상으로 전통성년례를 재현한다.

동구릉문화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100%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동구릉문화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어가행렬 재현의 경우 왕 1명, 세자 1명, 문무백관과 병사 등 280명을 직접 공개모집으로 선발했다. 올해의 경우, 당초 모집 인원 280명을 넘은 400명이 넘게 지원해 행사 관계자들이 선발하는데 애를 먹었을 정도라고 한다. 구리시, 구리문화원 그리고 구리시민들은 동구릉문화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동구



릉의 유구한 역사를 조명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동구릉은 그 규모와 형식, 역사성에서 가치가 있어 조선왕릉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15개 지구의 능역 중 세계유산으로 가장 가치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에 걸 맞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2012년에만 20여만 명이 방문했지만 동구릉 주변에는 국제수준의 숙박시설이 없고 동구릉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브랜드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문경 구리문화원장은 “조선왕조의 500년 숨결이 찬란하게 이어져 내려온 동구릉을 모티브로 시민 중심의 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대, 최고의 역사성과 공간을 갖고 있는 동구릉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김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중봉 조현 선생 충절 기리고... 김포역사 · 문화 배움의 장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상식이 됐다. 남녀노소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 브랜드나 지향점을 이야기할 때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강조한다. 도시 경계를 벗어나 새 지역으로 진입 할 때 표지판에서도 이를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예로 홈페이지에서 '문화'라는 그 흔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 도시브랜드 'best gimpo'에 대한 설명문에서도 문화예술은 없다. 이쯤에서 김포의 역사와 문화예술은 무엇이며 어디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조선시대 문인이자 의병장 활약, 위패 모신 우저서원서 문화예술제
추모제·지부상소 재현 다양한 행사 청소년들 백일장·사생대회 펼쳐져



김포문화원(원장 이하준)이 주관하는

‘중봉문화제’와 ‘김포청소년문화축제’는 이 금금증을 해소 시켜줄 만한 시의 대표 문화 예술 아이템으로 꼽을 만하다. 중봉문화제와 올해로 28회째 열린 김포청소년문화축제는 지난 6월 8일 우저서원 일대에서 펼쳐졌다.

중봉문화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중봉’은 김포에서 태어난 조선시대 애국자의 호다. 중봉 조헌(趙憲, 1544~1592년) 선생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격퇴했다. 같은 해 8월18일 금산전투에서 순절, 평생 애국애족과 살신성인을 실천한 인물이다. 24세 때 과거에 급제한 이래 정주, 파주, 홍주목의 교수와 교서관의 저작, 박사를 거쳐 예조좌랑, 통진현감, 공조좌랑, 전라도사, 종묘서령, 보은 현감 등을 역임했다. 정치·교육·경제·군사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론을 주장했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의병장으로 분투하며 실천하는 지식인이 됐다. 중봉문화제는 이처럼 사회 개혁가이자 교육자, 유학자, 문인이었던 조헌 선생의 삶과 사상을 되짚어보며 그 속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김포문화원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중봉 조헌 선생을 조명하고 있다. 풍물길놀이를 시작으로 우저서원과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고유제와 추모제, 내림음식제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의상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중봉고유제(告由祭,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적어서 사당이나 신명에게 알리는 제사)를 통해 조헌 선생을 기리며 그의 호국 충의 정신을 알린다. 고유제가 열리는 우저서원은 중봉 조헌 선생이 타



제한 지 56년 만인 1648년에 전주 이만춘 공의 상소로 인조대왕의 윤허로 건립됐다. 대원군 당시 전국의 서원을 철폐하는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 총 650여 서원 중 헐리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가 우저서원이다. 해마다 봄 2월 중정일(中丁日)과 조현의 기일인 음력 8월 18일에 향사(享祀)를 지낸다.

중봉문화제에서 고유제를 지낸 후, 중봉 조현 선생이 목숨을 건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재현한 연극을 상연하는 추모제가 열린다. 관직에서 물러나고서 제자 양성에 전념했던 조현 선생은 1589년 시대의 폐단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머리를 쳐 달라'는 뜻으로 도끼를 지니고 올리는 지부상소를 했다. 이 때문에 길주 영동역에 유배됐다가 풀려났다.

고유제와 추모제와 함께 조현 선생의 애족 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제 프로그램이 바로 '내림음식제'다.



조현 선생이 군사들의 보양을 위해 개발한 음식 ‘양탕’을 재현해 관람객과 시식회를 하고, 전통 음식을 판매한다.

김포문화원이 중봉문화제와 함께 청소년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이 같은 중봉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청소년문화축제는 같은 날 우저서원 행사장 내에서 진행되는데, 중봉문화제를 주제로 한 사진촬영대회, 백일장, 휘호대회, 사생대회 등이 각각 이뤄진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저서원에서 모여 중봉조현동상을 참배하고 조선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 ‘후율당’과 의병의 군사훈련 기지로 사용됐던 절 ‘가산사’ 등을 돌아보는 ‘충의정신 역사기행’을 주관한다.

이처럼 중봉문화제와 김포청소년문화축제는 김포시의 역사 인물을 기리며 그의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려고 문화예술의 형식을 빌린 지역행사다. 지방 문화원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등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제를 통해 지역성을 확립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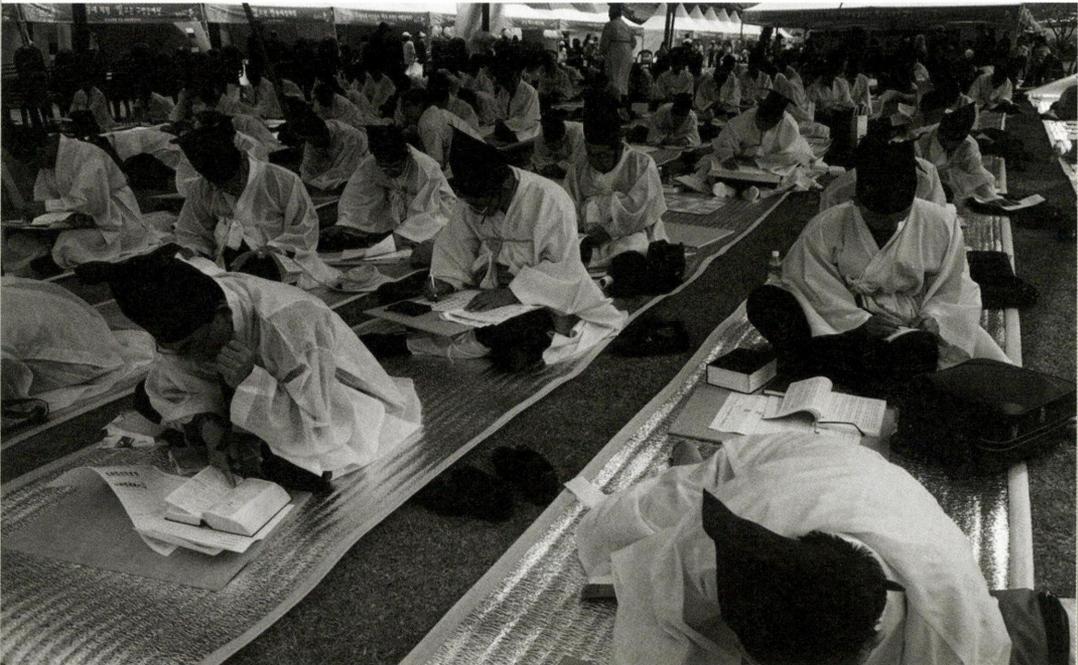
글_류실아기자 rsat19@kyeonggi.com



충신 정몽주 충절·학덕 기려... 대한민국 명품 축제로 '우뚝'

5월이다. '가정의 달' 5월은 1990년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축제의 계절'이 더 잘 어울리게 됐다. 지자체별 행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축제가 각 도시의 정체성을 공공히 하고 이를 널리 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등 다양한 긍정적 측면 때문이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지역 축제 대부분에 대해 내용 없는 빈껍데기 혹은 지자체장의 홍보용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용인의 '포은문화제'가 '제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지역행사를 향한 솔한 비판에서 비켜나 내용이 알찬 축제로 인정받은 포은문화제의 수상 비결에서 지역 문화예술축제가 지향해야 하는 새 지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장행렬’ · 추모제례 전통행사 펼치고 규방공예
 체험 · 한시 백일장 등 진행
 새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
 과거 · 현대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로



용인문화원(원장 김장호)이

주최로 ‘제11회 포은문화제’가 5월 10~12일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 행사장(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서 펼쳐졌다. 포은문화제는 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1337~1392)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

무엇보다 지난 2003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6월의 문화인물로 포은 선생을 선정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용인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임에도 선양(宣揚)사업을 벌이지 못했다는 용인문화원 관계자들의 자발적 반성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몽주는 시조 ‘단심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충신이었으며, 우리나라에 성리학의 체계가 확립되기 전부터 성균관에서 자신이 연구한 독자적 학설을 가르친 뛰어난 학자다.

외교가로서도 명성을 떨쳤는데 왜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직접 뛰어난 시문으로 풀어내고 심지어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고려인을 함께 데리고 귀국할 정도였다. 우왕 즉위시 명나라 사신 채빈이 살해되는 사건을 해결해 고려와 명나라와의 국교를 다시 열게 만든 주인공도 정몽주 선생이다.

조선 건국에 뜻을 같이 하자는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고 돌아가던 길에 개성의 선죽교에서 희생당한 정몽주. 개성 풍덕에 초장했던 묘소를 1406년(태종 6)에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하면서 용인과 인연을 맺게 됐다. 후손들이 모현면 능원리에 묘막을 짓고 거주한 이래 영일 정씨 집성촌이 형성됐다.



이후 용인에는 묘역을 중심으로 포은 선생 종가와 가묘인 '포은영당'(圃隱影堂·1679년 임금이 건축자재를 직접 하사해 지은 건물), 학문고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충렬서원'(忠烈書院), 두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기록한 '묘표'와 '신도비' 등이 남아 있다. 포은 선생의 묘소는 1972년 경기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됐다.

이처럼 용인시는 정몽주의 묘소가 옮겨지면서 후손과 포은 선생을 숭배하는 유림이 몰려들어 그 학풍이 전해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지역 문화의 변화를 겪었다.

때문에 이 같은 인물 정몽주를 기반으로 한 포은문화제는 다함께 먹고 즐기며 반짝 경제 특수를 노리는 여느 지역축제들과 궤를 달리한다.

포은문화제는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정몽주 선생이 복권돼 그의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묘를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천장행렬', 유학에서 중시했던 관혼상제의 첫 통과의례로 남자가 상투를 틀고 관(冠)을 쓰는 '관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 의식을 차용한 정몽주 선생 '추모제례' 등을 선보인다.





여기에 옛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제11회 전국한 시백일장, 경기도청소년국악경연대회, 국악·관현악·가곡 합창제 등 각종 공연,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규방공예 체험, 도자기·숫대·탁본 체험 등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와 융합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용인 포은문화제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문화를 ‘진지하게’ 배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다. 지자체가 예산

투입 후 경제적 측면의 효과만 따져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해 자칫 흉내내기로 전락할 수 있는 전통 재현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기본 주요 프로그램으로 끌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글_류실아가자 rsat19@kyeonggi.com



단오 세시풍속 체험... 세대 아우르는 '생활축제'

요즘 사람들 중에 단오(端午·음력 5월 5일)가 4대 명절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외에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그렇게 네 명절을 크게 쇠었다고 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 고유 민속명절은 쉬는 날, 또는 여행 가는 날로 여겨지며 그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 그 자리를 뿔런 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빼빼로데이 등 최근 몇 년 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생해 번져가고 있는 온갖 서양기념일과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기념일들이 차지하고 있다.





액 막아주는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뛰기 · 씨름 · 투호던지기 등
조상들이 즐겼던 전통놀이 ‘풍성’ 역사 · 문화 살아 숨쉬는 축제로
거듭나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단오는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창포물에 머리감는 날’ 정도의 단편적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 2013년 6월13일 단오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단오축제가 열렸다. 그 중 의왕문화원(원장 박용일)의 제13회 의왕단오축제는 단오의 세시풍속과 전통놀이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축제’로 꾸민 것에 대한 노력에 의왕시민들은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의왕시와

의왕문화원은 6월 8일 토요일 의왕시 왕곡동 고천체육공원에서 제13회 의왕단오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놀이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오전 9시 식전행사로 길놀이, 해병대의장대, 개회식으로 행사의 흥을 끌어올렸다. 본 행사의 시작은 전통단오제를 시작으로 공원 곳곳에서 박터트리기, 투호던지기, 줄다리기, 새끼꼬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장이 마련됐다.

고천체육공원에는 유모차를 타고 나온 돌쟁이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온 꼬마녀석, 허리가 다 꼬부라진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할아버지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즐기기 위해 서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어르신들은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와 민속널뛰기를 구경하며 빨간 앵두 익을 즈음에 맞는 단오 때 시골에서 익모초 즙을 내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썩을 뜯어 떡을 해먹던 그 시절을 추억했다.



어린이들은 달고나체험, 제기만들기, 전통화분놀이 만들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머리에 윤기를 주고, 액을 막아주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보는 이색 체험코너에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단오날 가장 큰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이 있다. 그네뛰기는 외출이 뜻대로 못하였던 옛날 부녀들이 1년내 억눌렸던 마음을 활짝 펴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다. 남자의 놀이로는 더운 여름 신체를 단련하는 씨름이 있다. 그러나 의왕단오축제에선 남자뿐만 아니라 아줌마, 어린이 꼬마씨름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단오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오아줌마 선발대회’. 키와 몸무게 등 외모 중심의 다른 미인선발대회와는 다르게 단오아줌마 선발대회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의왕시 거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다. 이날 폐회식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직접 쓴 소원성취 종이태우기 행사로 마무리됐다.

김용일 의왕문화원장은 “의왕시의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전통놀이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의왕단오축제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축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열리는 지역 축제가 1천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지자체마다 평균 5개 이상 열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전시성·낭비성 축제라는 지적을 받기 일쑤다. 게다가 지역민과 괴리된 채로 관 주도나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으로 축제가 기획,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의왕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의왕단오축제는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콘셉트로 잡아 전통과 현대문화가 접목된 '생활축제'로, '참여형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전통적인 단오축제 색채는 다소 약해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의왕시민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 것만으로 충분했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이천의 역사·문화 눈높이 교육... 청소년들 '문화지수' 높인다

문화유산(文化遺産)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의 핵심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사회 통합이란 국가적 목표 달성에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의 사전적 의미는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자원이 없어 가난했던 우리 민족은 훈민정음, 금속활자 등 창조적인 문화유산으로 21세기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K-pop과 K-드라마 등 한류로 지칭되는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세계인들에게 어필하며 봄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한류가 그 사례다.



66

60세 이상 교원 · 공무원 출신 초 · 중등생 대상 방문교육
연극 · 스토리텔링기법 등 활용 전통예절 · 인성교육 진행 호응

99

문화유산은

결코 '옛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21세기 문화산업의 선두이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탄탄한 미래를 위해 문화유산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로컬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지수(CQ · Cultural Quotient)를 높여주고 있는 이천문화원(원장 조명호)이 주목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천문화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높이고 이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심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한 '2013년도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IQ에 열광하던 시대에 감성을 강조하던 EQ를 넘어, 융합의 시대 CQ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에서 전문지식 부족, 교육과정 연계미흡, 교재 미비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기획됐다.

'조상의 얼이 담긴 이천 문화유산과의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1회 교육이 예정돼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천 지역 초 · 중등생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서희, 어재현 장군 등 우리고장 위인과의 만남 △설봉산성, 고인돌 등 우리 고장의 문화재 탐구 △현대 생활 속의 전통예절 △박물관 견학 및 영릉 참배 등의 현장학습 등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천에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고종 때의 무관으로 미국 로저스 제독이



지휘하는 군함과 광성진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전사한 어재연 장군부터, 독립운동가 이수홍 의사, 고려의 외교 문신 서희 선생 등을 비롯해 신라 때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설성산성’, 이천향교, 이천중리삼층석탑, 이평리석불입상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분포돼 있다.

풍부한 지역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기존의 하드웨어적 문화재 개념과 범주를 탈피해 생활상과 정신적인 부분, 역사문화 경관, 세계문화유산 등 그 개념과 외연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현대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암기식 문화교육과는 궤를 달리 한다.

강의는 60세 이상 전직 교원, 공무원 출신 어르신들로 구성돼 활동 중인 이천문화원 소속 이천향토사 문화재보존연구회(이하 향문회) 회원들이 맡아 하고 있다.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성희경 어르신은 “40년 교직생활을 마무리 짓고 역사와 과거, 조상의 얼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을 알고 새로운 미래를 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고리타분한 전통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교육, 문답식 교육, 스토리텔링기법,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인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해 학생들과 학교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강사의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전통예절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절교육은 기본예절인 인사법, 어른을 대하는 예절과 친구간의 예절, 선생님에 대한 예절

등 학교예절을 비롯해 가정에서의 예절, 언어예절 등을 익히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맞춤형 예절교육은 다채로운 예절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어린이 인성교육과 배려, 나눔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교육활동으로 인기가 좋다.

조명호 이천문화원장은 “문화유산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키고, 가꾸고,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문제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주변에 둘러보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며

“관심 밖의 일이라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을 통감하고 공부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이 달라져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재를 공부하고, 답사하게 함으로써 ‘옛 것’을 ‘미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문화원이 문화유산 방문교육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_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단오의 참뜻 전승하며... 情 넘치는 '시민 통합의 장'

일 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하다는 음력 5월5일, 단오. 4대 명절로 꼽혔던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역과 동네별 소소한 전통 체험 행사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평택문화원이 주관하는 '소사별단오제'는 단오의 진짜 의미를 전승하고 있었다. 지역축제의 전통적 기능은 원초 제의성의 보전,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등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오락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요구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충족 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중요무형문화재 웃다리평택농악,
22개 읍면동 참가 농악 경합대회
씨름·그네뛰기 등 남녀노소 어울려 마을마다
음식 나눠 먹으며 정 돈독



달리 말하자면, 지역축제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인 셈이다. 따라서 각 지역축제는 개최지의 역사적 정통성을 있고 그 이미지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역축제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평택시에서 열리는 소사별단오제를 지역축제의 롤모델로 추켜세울 수 있는 근거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문화원(원장 김은호)이

80년대부터 개최해 온 소사별단오제는 평택시의 행정적 변화를 고스란히 함께 했다. 여느 도시 형성 과정이 그러하듯, 나뉘었다가 통합되는 변화를 겪은 평택시 역시 각 시군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평택시는 3읍 6면 13행정동이다. 이에 평택의 단오제는 ‘시민 통합의 장’이라는 숙명을 안게 됐다. 다행인지 운명인지, 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인 웃다리평택농악이 그것이다.

평택문화원은 소사별단오제를 통해 22개 읍면동이 모두 참여하는 농악 경합대회를 벌인다. 이는 국가가 인정한 ‘우리 마을의 전통문화’를 직접 해낸다는 자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단오제에서는 전통적 색채를 살릴 수 있도록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전통주 만들기 등 다채로운 경연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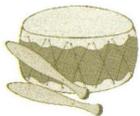


부문마다 22개 읍면동 대표 선수들이 참여, 평택시의 남녀노소 시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사별단오제에서는 평소 농악을 배우고 전승하는 전문가 수준의 아마추어부터 씨름을 즐기는 아저씨, 곱게 한복 입고 그네뛰고 널뛰는 아가씨와 아줌마, 전통주 빚는 비법을 자랑하는 주민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각 읍면동 주민은 대횃날인 단오 이전부터 수개월간 경연에 대비한 연습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평택문화원은 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총 6천500만 원의 대부분을 연습 지원금으로 쓴다. 소사별단오제 당일 행사를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 즉 '시민 통합'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문화원은 또 각 경연 시상식과 폐회식이 있기까지 창포 머리감기, 단오 음식 전시 및 시식, 전통 떡메치기, 민속놀이 등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여타 도시의 단오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험코스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소사별단오제를 남다르게 만드는 것이 존재하는데, 각 마을 단위 텐트에서 펼쳐지는 먹을거리 판이다. 주최 측이 주도한 것도 아닌데 마을마다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대접하는 풍습까지 자리 잡았다고.

이처럼 다채로운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연습 지원금과 시상금을 쓰고 나면 지자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는 지역과 소사별단오제에 애정을 가진 문화원 임원진을 비롯해 평택시체육회, 평택농악보존회, 평택시예절교육원, 평택시우리음식연구회 등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만 경연 준비량이 많고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격년제로 진행하는 것은 아쉽다. 기실 예산 문제가 더 큰 것은 아니었을까. 전통과 역사성을 갖춘 축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그 징검다리가 끊기질 않길 응원해본다.

글_류설아가자 rsat19@kyeonggi.com



충·효·예 뿌리 깊은 ‘화성 정신’... 배움의 문 활짝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물질적 충족보다 정신적 풍요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이 말이 모든 이의 현실은 아니다.

자살, 왕따, 폭력 등 많은 사람이 끝없는 경쟁에 좌절하고 상처입어 정신적 빈곤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성문화원이 화성시민의 정신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6월 27일 공식 개관하는 예절관은 그 시작점이다.





다도예절과 절하는 법 등 전 연령층 대상으로 무료 교육
초등생에 '소학' 함께 가르쳐 눈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특화 사업



“아무리 시대가 풍요로워도

정신이 빈곤하면 허탈하죠. 우리는 모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화원은 바로 이 갈증나는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해요.”

우호철 화성문화원 원장의 말이다. 예절관을 마련한 이유다. 우 원장은 지난 2012년 1월 취임 당시, 화성시의 정신을 발현하고 문화원이 그 정신적 메카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예절관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화성 정신'은 무엇인가. 화성문화원은 화성정신으로 '충·효·예'를 꼽는다. 문화원 팸플릿 첫 장에도 이 화성정신을 내세웠을 만큼 모든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실체는 화성시에 있는 각종 유적지와 역사 속 인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화성시는 1억여 년 전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 1천여 년 전 실크로드 시작점으로 신라가 서해를 통해 대중국무역을 실시할 당시 중요한 길목이자 출입구였던 산성 '당성'이 존재하며, 500여 년 전 조선시대 문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우성전이 살았던 곳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0여 년 전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 오롯이 깃든 사찰 용주사와 부모은중경관을 볼 수 있고, 100여 년 전에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시 전역에서 3·1만세운동이 이뤄진 지역이다.

문화원은 최근 지역문화재단과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설립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받으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성문화원은 화성정신을 계승하고 발현시키는 공간으로 예절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 기저에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화원의 자발적 변화가 읽힌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인프라를 지원하고, 박물관은 연구와 전시 등에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이다. 이 상황에서 문화원은 온전히 시민만을 주연으로 세우고 정신·전통·민속·예절을 계승하는 거점이 돼야 한다”는 우원장의 말이 재확인시켜준다.

드디어 이를 실현하는 출발선이 될 예절관은 화성문화원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차 마시는 법 등을 4회에 걸쳐 전문 예절 강사가 무료로 알려준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정신적 기반을 다지고자 소학(小學·어린이에게 유학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함께 가르쳐 눈길을 끈다. 문화원은 예절관 개관식에 청소년예절지원센터 현판식을 동시에 개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특화 사업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이미 개관하기에 앞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시민 호응도는 일단 합격점이다. 단체 참여 신청은 물론 문화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예절관을 본 학부모들의 문의 및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원은 앞으로 예절관 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코스를 5~10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예절관 활용 방안은 다양하다. 현재 국비 지원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인 ‘화성시효행유적탐험대’에 예절관을 중요한 코스로 넣었다. 화성시효행유적탐험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주사, 용진릉, 최루백효자각 등 화성시내 대표 유적지에 얽힌 역사와 가치를 알려 준 후 직접 현장을 방문, 예절관으로 되돌아와 그 정신을 체화할 수 있도록 예절교육을 이어간다. 국비 지원금 900만원을 토대로 15회에 걸쳐 탐험대를 꾸릴 계획이다.

문화원은 또 예절관을 통해 노인층의 고리타분한 공간이라는 편견을 깨트리고 이용자층을 전 연령대로 넓힐 전략을 세웠다.

돌잔치, 성년식, 결혼식, 회갑연, 상례 등 인간의 생애에 걸쳐 중요한 각 예법을 공모로 선정한 시민 가정에 대해 전통방식으로 치러주고 이를 촬영해 상영하는 방식이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의 삶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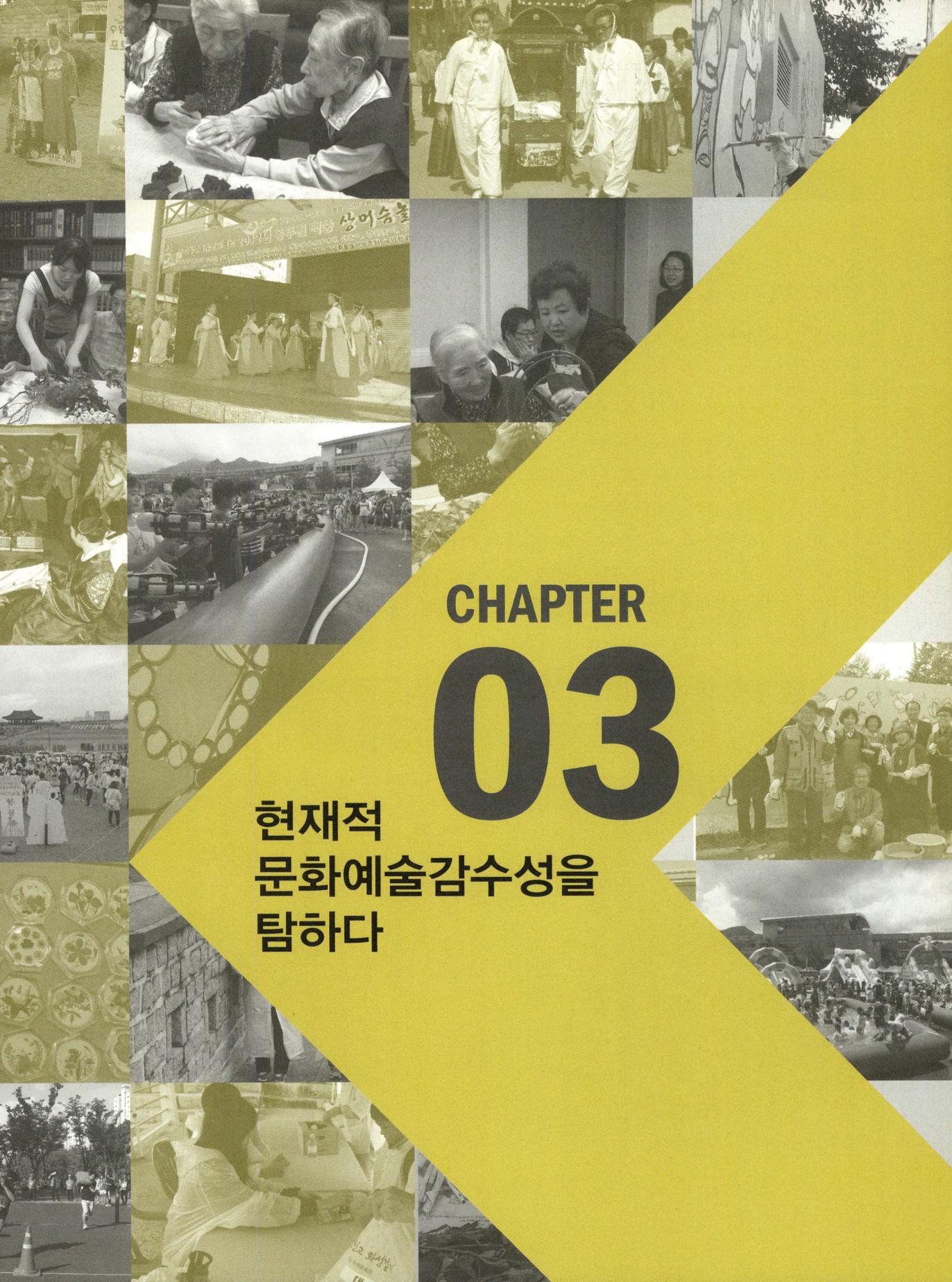


여주고 전 연령층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절은 인간 도리의 근본이라고 했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예절을 배우기보다 배부른 돼지의 삶을 쫓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영어마을과 현대화된 체험 교육 기관 등에 밀려 자취를 감춘 예절관이 방증한다. 이러한 때에 문화원이 예절관을 마련한 것은 유의미하다. 화성문화원 예절관의 활약을 응원해본다.

글_류살이기자 rsaf19@kyeonggi.com







CHAPTER

03

현재적
문화예술감수성을
탐하다

흥겨운 전통놀이...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세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3천960만㎡)가 미군 공여지다. 이는 여의도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사실상 임야를 빼면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못살던 시절에는 미군으로 인해 잠시 호황을 누리기도 있었으나 62년간 동두천 지역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동안 정체되는 등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도시가 됐다.

재정자립도도 19%에 불과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꼴지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경제가 '동두천은 문화 불모지'라는 낙인을 더욱 깊게 파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오명을 벗고 문화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동두천문화원이다.





기지촌 오명 벗고 지역문화 활성화시키고자 개최

경기문화재단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일환, '오감만족 행사' 마련



동두천문화원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문화 불모지' 낙인을 벗기 위해 시작한 것이 '동두천 백중상머슴 놀이 한마당'이다. 백중놀이는 음력으로 7월15일 백중일(伯中日)에 행해지던 놀이를 치칭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전통적으로 백중을 명절로 여겨 가정에서는 차례를 모시기도 하고, 또 마을에 따라서는 동제를 모시기도 했다. 특히 김매기를 끝낸 농사집에서 머슴들의 힘든 노동의 서글픔을 달래기 위해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와 춤 민속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이러한 백중놀이의 취지를 살려 동두천문화원은 지난 2007년, 2008년 백중상머슴놀이 한마당을 2년 연속 개최했다. 그러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행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안민규 원장과 문화원 직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 지원이 중단됐더라도 행사를 방문했던 시민들의 행복한 표정과 감사인사를 받고 이 행사를 반드시 개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12년 경기문화재단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커뮤니티 예술 진흥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추구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했다. 동두천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사라져가는 백중제의 원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현보존에 힘쓴 동두천문화원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3년 동안 중단됐던 동두천 백중상머슴 놀이 한마당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

2013 동두천 백중상머슴 놀이 한마당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시민공원 야외무대(동두천시 지행동 691)에서 펼쳐진다.



행사는 △전통음식먹거리마당(연포국, 누룩술, 두부, 빈대떡) △전통민속 문화체험(가혼 씨주기, 노끈공예, 한지공예, 투호놀이, 떡메치기) △흥겨운 전통문화공연(우리가락한마당, 송서울창, 풍물놀이) 등 먹고, 만들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통음식먹거리 코너에서는 두부나 무·고기 등을 넣고 끓이는 맑은 장국인 ‘연포국’을 맛볼 수 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90세의 어르신들의 고증을 통해 준비하는 연포국은 세련된 맛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할머니가 끓여주던 투박한 토속적인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이 모든 먹거리와 체험이 다 무료로 진행된다 보니 지난해 행사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동두천 백중상머슴 놀이 한마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백중 상머슴 선발대회’다. 20kg 가마니 메고 달리기(남), 새끼 꼬기(남여), 물동이 이고 달리기(여) 3개 종목이 개최되며,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은 “동두천시는 지난 2008년 신시가지 조성 이후 7만 명의 인구에서 9만 6천여 명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 정체된 상태로 10만 명이 채 안 된다”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60여 년간 희생해 왔던 동두천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헬기와 탱크의 굉음, 미군들의 잦은 군사훈련 등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화 불모지’에서 어렵게 싹틔운 ‘동두천 백중상머슴놀이 한마당’이 경기문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본다.

글_김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전통문화 체험공간 변신·한옥마을이 ‘시끌벅적’

부천시의 한옥마을이 확 바뀌었다. 마을이래 봤자 현대식 한옥 9동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은 평일 오전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단체 관람객 수 백 명으로 북적거린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가족 단위 관람객 1천명이 몰린다. 이곳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담힌’ 공간이었다. 시민은 발걸음 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끈 것은 부천문화원(원장 박형재)이다. 애정과 땀을 쏟은 문화원 직원들은 ‘사람이 힘’임을 보여줬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콘텐츠가 최대 무기’라는 것을 입증했다. 새 건물 짓기에 열을 올리고 콘텐츠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하다.





떡 케이크 만들고 민속놀이 즐겨, 옛 격식대로 올리는 전통혼례 인기
지역축제 연계 먹거리 장터 · 공연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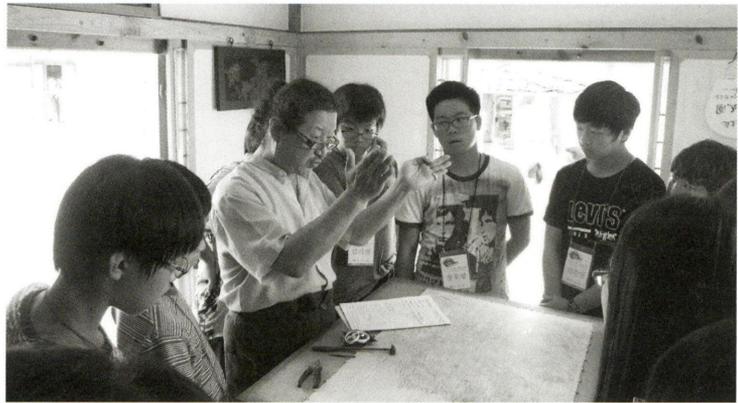
부천시의

한옥체험마을(원미구 상동)은 으리으리한 현대식 건물인 한국만화박물관의 뒤편에 자그마하게 있다. 2011년 부천문화원이 부천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기 전에는 무형문화재 공방 거리였다. 9개 현대식 한옥에서 9명의 무형문화재가 개인 작업을 벌였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네들의 세계에 집중하는 작업실이다 보니, 시민이 방문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시가 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방침을 시민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변경하면서 이유가 생겼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천문화원이 한옥체험마을로 명칭을 바꾸면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문화원은 우리나라 김치 명인 김순자씨가 운영하는 김치체험관을 제외한 8개 동에서 전통적인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개하자면 이렇다. 우선 마을 입구에 자리한 전통찻집 ‘안다미로’는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재료값에 불과한 3천원이면 맛 좋고 건강에도 탁월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을 전경을 한눈에 훑어볼 수 있다. 마치 대갓집 주인장이 된 느낌이다.

한과 체험 길음을 읊기면 경기무형문화재 제39호 광흥찬 조각장이 금속조각기법은 입사로 제작 재현한 ‘은입사 천상열차분야지도(1935년에 고구려 석각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알려진 천문도)’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공방거리에 있던 무형문화재 중 유일하게 남은 광흥찬 조각장은 자신의 작업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토요일에는 금속 조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더 있다. 전통음식 체험실에서는 떡 케이크와 쌀 강정을 만들어볼 수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1개 한옥동에서는 전통 악기와 민요, 풍물놀이 등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한옥 2개동은 4~8인 가족이 잠잘 수 있는 숙박동으로 운영, 주말은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다. 이 숙박동 사이에 조성된 정원은 또 다른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다. 한옥체험마을을 널리 알린 대표 콘텐츠이기도 하다. 이 정원이 바로 평소에 한옥 1개동(전통혼례실)에서 전시하는 전통혼례복과 가마, 각종 혼례 물품을 실제로 사용해 전통결혼식이 치러지는 혼례청인 것이다.

문화원이 전통혼례나 특이한 결혼식을 찾는 시민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는 한편, 지역에서 전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4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의 비용만 내면, 누구나 한옥체험마을의 주인공이 돼 옛 격식대로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다. 올해에만 벌써 13쌍이 혼례를 치렀는데, 영화 천녀유혼의 홍콩 작가 부부와 영국의 유명한 담배회사의 손자 부부도 그들 중 하나였다고.

이처럼 문화원이 알찬 프로그램으로 한옥체험마을을 운영한 지 3년째. 그동안 최의열 사무국장을 비롯한 문화원 직원들은 삭막했던 공방거리의 한옥문을 모두 열었다. 꽃과 풀을 심고 재개발지역과 폐가에서



주운 오래된 생활용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했다. 밤까지 이어지는 시민 발길에 초롱도 달았다.

문화원 직원들은 또 안양, 전주, 원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전통혼례법을 배웠다. 숙박동에 투숙객이 있는 날이면 밤샘 당직을 서는 것도 모자라 쉬는 날 없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전통 혼례를 주관한다. 한편 전통혼례 및 한옥체험마을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전화(032-651-3739) 또는 홈페이지(www.bucheonculture.or.kr)로 하면 된다.

글_류설아기자 rsat19@kyeonggi.com



짚신 신고 화성(華城) 한바퀴,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벗짚으로 만든 신, 짚신. 그 명칭이 옛 문헌에 등장하는 것을 따져보면 짚신의 역사는 약 2천여 년 전 마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대중적 평상화로 서민의 발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짚신은 다양한 소재와 기능의 신발들에 자리를 잃은 채 '유물'이 됐다. 수원문화원(원장 염상덕)은 가치가 사라진 짚신에 새 기능을 부여했다. 짚신을 신음으로써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내가 사는 마을과 그 속의 세계문화유산을 깊이 들여다보게 했다.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그 기능은 '돌보기'가 된, 새로운 짚신을 만났다.





곳은 날씨에도 2천여명 몰려, 창룡문~화성행궁 광장 2.9km
음악회 즐기고 가을정취 만끽



수원문화원은

7월 29일 제50회 수원화성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짚신신고 수원화성걷기’를 주최 주관했다. 가랑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2천여 명의 체험객이 몰렸다. 1만5천원의 유료 체험 행사였음을 고려하면, 꽤 높은 참여율이다. 4천여만 원의 사업 예산과 참여 인원 수치를 다른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과 비교하면 효율성 있는 행사였음이 더 명확해진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끈 힘은 무엇이였을까. 답은 현장에서 나왔다. 이날 오후 12시 창룡문 현장 접수창구에 모인 체험객 중 인터넷 사전 등록자들은 접수증을 낸 후 짚신과 짚신 주머니, 생활한복 상의, 생수, 지도 등을 받고 본격적인 세계문화유산 화성 걷기에 나섰다. 현장 접수자 대부분은 가족 단위였는데, 짚신 갈아 신고 사진 찍는 모습에 호기심을 느낀 자녀의 성화에 체험료 지출을 감행하는 모습이었다.

쌍둥이 손녀의 손을 잡고 나타난 권모(67) 할아버지는 “수원화성문화제 구경 나왔다가 우연히 짚신을 봤다. 처음 본 손주들이 궁금해 하기에 같이 신고 걷기로 했다.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노소 참여객 모두 짚신을 프로그램 선택 이유로 꼽았다. 도심에서 짚신 신고 걷는 생경한 문화 체험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지난해 참가했던 사람도 많았다. 문화원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작년에 구매한 소품을 착용하고 체험단에 합류했다. 필요하면 새 짚신만 구매했다. 올해 참가자들은 내년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매년 일정 규모의 체험객을 담보할 수 있는, 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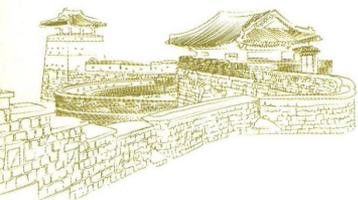
창릉문에서 집결한 사람들은 짚신을 신고 세계문화유산을 누볐다. 장안문, 서장대, 수원화성행궁, 수원화성 행궁광장까지 약 2.9km의 구간을 걸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짚신을 등에 멘 참가자들이 많았다. 그 모습이 먼 길 떠나는 조선시대 과객과 겹쳤다. 자신이 사는 수원시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떼는 것에서 ‘느림의 미학’이 피어올랐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걷는 구간 도중 장안문과 서장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느리게 걷는 묘미와 흥취를 돋웠다.

부부가 함께 참여한 조모씨(33)는 “짚신 하나 신었을 뿐인데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 화성이나 멀리서 본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더 운치 있어 보인다. 라이브로 클래식 음악까지 들으니 더 특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짚신은 내가 사는 동네와 무심코 지나친 화성을 색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시작점이 됐다.

“짚신을 신음으로써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걷고 바라볼 때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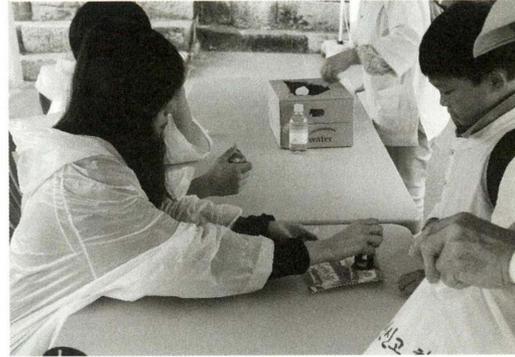
주인군 수원문화원 사무국장이 밝힌 행사의 기획의도는 적중했다.



그뿐만 아니라 완주증을 받아 든 체험객 중 일부가 문화원 측에 적극적으로 내년엔 활용할만한 아이디어를 내놔, 이 행사가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소통의 장이 되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또 문화원 측이 수원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지팡이를 짚신과 함께 판매하는 시민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내년의 또 다른 풍경이 그려진다. 무명 한복에 짚신 신고 붓집메고 지팡이까지 챙겨든 나그네 수 천, 수 만여 명이 수원 화성을 걷는 장관이 현실이 되길 바라본다.

글_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섬세한 붓질로 그려낸 '이야기가 있는 벽화'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열풍이다. 이에 발맞춰 동네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벽화'다. 낙후된 지역 곳곳에 형형색색의 이미지를 입혀 외지인의 사진 촬영 장소가 되는 등 관광명소로 등극시키는 효과적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점차 벽화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성 때문에 화가 주도로 그려진 벽화는 프로젝트 기간 만료 후 보존 관리가 쉽지 않고, 서투른 실력의 주민이 그렸을 경우 완성도가 떨어져 오히려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마을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담지 않은 채千篇일률적인 이미지의 벽화는 쉽게 질리고 결국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한 벽화 단이 등장했다. 안성문화원(원장 양장평)이 3년째 역점사업으로 추진, 운영하는 '실버벽화사업단'이 그 주인공이다.



66

70시간 이론·실기 체계적인 교육 후
 학교 담벼락·노후 건물 등에 그림
 문화 활동 통해 '제2의 인생' 즐겨...
 마을 이야기가 있는 벽화로 차별화 꾀해

99

실버벽화사업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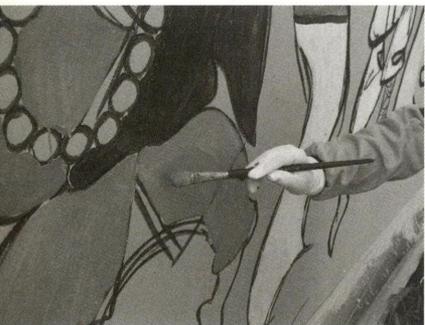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안성문화원이 제2의 인생을 맞은 노인층에게 대외활동 동기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풍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꾀한다는 목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다.

55세 이상 어르신 20여 명으로 구성, 최고령자 70세 회원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담벼락과 노후한 건물, 공사장 차단벽 등 안성시 곳곳에 그림을 그려왔다. 매 벽화 작업에는 안성에서 작업하는 전업 작가이자 실버벽화사업단의 지도강사인 강종찬씨(54)를 비롯해 미술 부문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사업단 가족 등이 함께하고 있다.

10월 27일 오후 안성시 공도읍 문기초등학교의 정문 입구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강종찬 화가와 사업단의 어르신들, 그리고 따라 나온 가족과 봉사자 등 10여 명이 연신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들의 붓끝을 따라 벽에서 금세 사자탈이 춤추고 옛장수가 신명나게 노래하며 꼭두쇠가 힘차게 상모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마추어치곤 꽤 수준 높은 이 결과물을 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제대로 그림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어르신들은 벽화 사업 현장에 나서기 전 강종찬 지도강사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70시간 이상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았다. 커리큘럼은 수채화, 산수화, 벽화 그리기 이론을 시작으로 야외 스케치와 미술관 견학, 명화 감상, 드로잉과 채색 등 실기수업까지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



회원 중 일부는 3년 전 실버벽화사업단이 운영되는 첫해부터 활동,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활동으로 실력을 쌓고 있다. 회원 한 명 한 명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셈이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은 안성으로 향한다.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며 삼남의 입구다. 글공부에 빠져 가정경제에 소홀했던 허생은 이곳에서 장사꾼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한다. 나라 제사에 쓰일 과일 등 필수 상품을 두 배 가격에 모두 사들인 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판다. 갑자기 웬 허생 타령인가. 허생의 매점매석에 대한 찬반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안성문화원의 실버벽화사업단이 지역 곳곳에 벽화를 그리면서 동네 이야기를 주소재로 끌어들이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무능력한 허생이 뛰어난 상인으로 재탄생하는 무대가 바로 안성이다. 소설에서만뿐 아니라 실제로 조선말까지 안성장터는 전국 3대장으로 꼽힐 만큼 규모가 컸던 시장이다. 안성문화원은 이 같은 동네 이야기를 주목했다.

실버벽화사업단을 꾸리면서 일관된 주제 없이 사진 찍기 좋은 예쁜 그림으로 벽을 채우는 여타 마을과 달리, 안성의 전통을 벽화의 주소재로 활용키로 계획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허생전에 등장하는 안성장터이며 조선 후기에 하나밖에 없던 여자 꼭두쇠로 안성남사당패를 이끌었던 바우덕이가 그것이다.

양장평 원장은 “지역의 노인이 벽화 제작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면서 지역문화가 널리 뻗어나갈 수 있는 데 한 몫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흔히 잘못된 광고로 제품은 기억나지 않고 인상적인 모델이나 이미지만 각인되는 것을 꼽는다.

벽화사업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별화된 ‘스토리’가 존재해야만 한다. 안성문화원이 실버벽화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도긴 개긴 벽화를 지양하고 지역성을 끄집어낸 점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이유다.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져... '행복한 노후' 꽃핀다

바야흐로 '꽃노년'의 시대가 왔다. 허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주된 활동 내용이 친구와의 대화, 바둑·장기·화투·건강 체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 등이 대부분이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니어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가 나서 노인복지 3F정책(Fun, Family, Future)을 수립하고 3F의 하나인 'Fun'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시니어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추세다. 그 대표작품으로 바로 양평문화원(원장 장재찬)이 2013년 어르신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꽃누리미(압화강좌)' 사업이다.





귀농·귀촌 인구 맞춤형 프로그램 자연 소재로 한 ‘꽃누르미’ 수업 마음의 여유 되찾고 자신감 회복



2010년 이후 해마다

국내 귀농·귀촌 인구가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 은퇴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귀농·귀촌 현상을 부추겼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양평군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됐다. 2013년 양평군의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율 2위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동안 1만5천여 명의 인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인구 증가에 따라 양평문화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안해냈다.

바로 ‘꽃누르미(압화강좌)’ 사업이 그것이다. ‘꽃누르미(押花·압화)’는 꽃과 식물을 눌러 건조해 원재료의 질감을 보존하며 그것을 이용해 실용 예술작품을 만드는 공예 기법을 말한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에서 시작한 꽃누르미 작업은 한지스탠드에 장식하거나 액자 식탁매트 등에 다양하게 응용돼 특유의 은은한 매력을 발산한다.

꽃누르미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작품은 액자나 병풍에 담거나 양초, 보석함, 명함, 카드, 스탠드 등의 일반 생활용품에 응용해서 광범위하다.

양평문화원은 지난 5월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총 22회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60대부터 80대까지 30여 명의 양평군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 중에는 류용채·정현숙, 남직우·차부근 부부도 있고 귀농·귀촌한 어르신들이 많다.



수업은 오선덕(43) 꽃누르미공예지도자가 맡아 △꽃과 풀 채집하기 △장미·카네이션 누르미하는 방법 △양초에 꽃디자인하는 방법 △스탠드·손거울 만들기 등 초급과정에 알맞은 다채로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게다가 재료비 부담도 없다. 그래서 양평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다.

최고령 차부근(79) 어르신은 “꽃누르미는 자연을 담은 예술입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소재로 하다 보니 정서적인 안정에 좋아요. 꽃누르미를 시작할 때는 그냥 가라앉은 심신에 활력이 될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이자 취미가 됐어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배우니 더 재미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차부근 어르신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꽃의 아름다움이 새록새록 눈에 들어 오고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오선덕 꽃누르미공예지도사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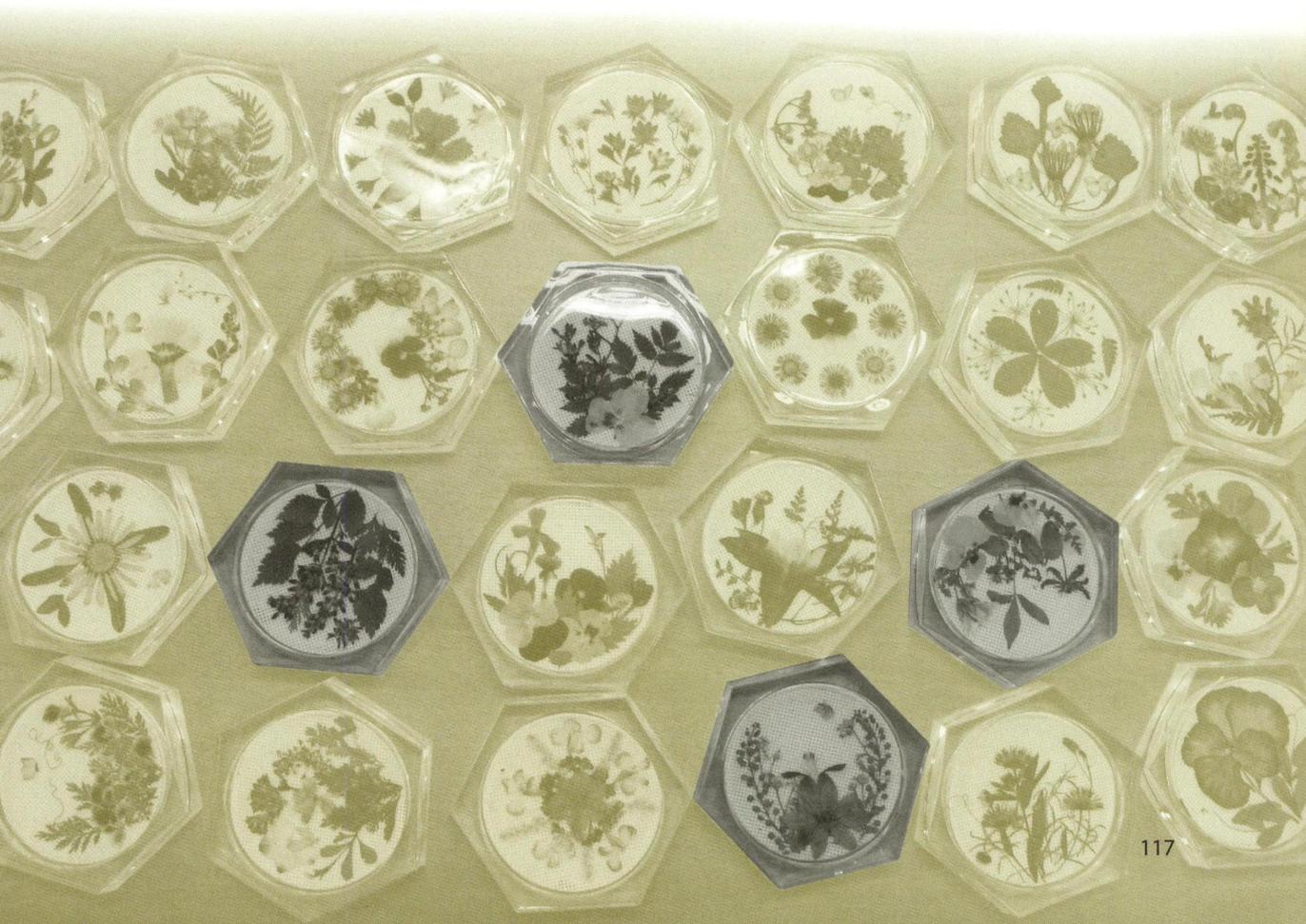


“꽃누르미에 참여 중인 시니어들은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꽃누르미는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노년에 무언가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는데 최고의 과정입니다. 정말 수업하는 내내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 미소에 제가 다 행복해집니다.”

미래 우리사회에서는 과거 청년 주도의 문화가, 시니어가 주도하는 문화로 점차 전환되어 갈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니어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시니어의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평문화원의 ‘꽃누르미(압화강좌)’ 사업은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글 · 사진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은빛 열정 빛나는 '아름다운 하모니'

“노인은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면 안된다. 젊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니까...”

책 '분노하라'로 전 세계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켰던 프랑스 작가 스테판 에셀의 말이다. 노년의 행복은 권리가 아닌 책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게겐 녹록치 않은 일이다. 가족과 사회는 노인을 버리려 한다. 젊은이들은 책임져야 할 경제적 관점에서 그들이 부담스럽다. 누군가는 늘어나는 노인의 존재를 정부의 무능한 인구 정책의 결과물로 여긴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선 노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방문화원의 하모니는 좀 더 아름답다.



66

전문지휘자 영입 기량 같고 닦아 독산성문화제 등 무대에서 실력 발휘
단원 연령기준 낮춰 참가자 확대 지역 곳곳서 공연봉사 '행복나눔'

99

오산문화원(원장 임명재)은 지난 201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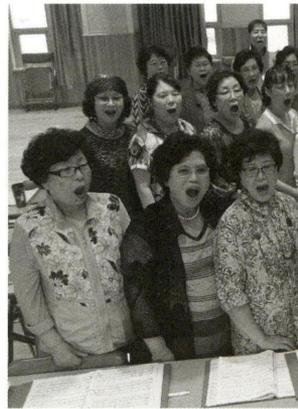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을 창단했다.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사연있는 사람들의 하모니가 전하는 감동을 오산시에서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단순히 노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산시에도 점차 원주민보다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노인층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어린이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대상 사업이 적은 편입니다.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나 오랜 시간 친분을 맺어 온 모임도 찾기 힘듭니다. 짧은 시간 내 노인 스스로 오산시민으로 흡수되는 한편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유종대 오산문화원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이 단순히 유행을 쫓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지역성을 토대로 결성된 '이유있는 시작'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남녀 30명으로 시작했다. 단원들은 월 2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였다.

창단과 함께 기량을 같고 닦아 오산시의 각 단체들과 협연하고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초청발표회를 했다. 노인 단원들은 문화원의 당초 기대만큼 나이를 넘어선 열정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화답했다.



창단 멤버인 박원청 할아버지(67)는 “평생 군인으로 딱딱한 생활하며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인생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 합창단에 들어왔는데 자유롭고 게다가 여자 없는 군대와 달리 아름다운 여성단원도 있으니 매순간 즐겁다”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행복한 노년을 책임지기 위해 합창단을 선택한 강규자 단장을 비롯한 모든 노인 단원은 더 많은 이들과 자신이 겪은 희망과 꿈의 하모니를 공유하려 했다.

이에 문화원은 단원 연령 기준을 당초 6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로 낮추고 참가자를 확대했다. 순식간에 단원은 76세의 최고령자를 비롯해 50명으로 늘었다.

처녀시절 합창단원으로 활동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음악 활동을 접어야만 했던 김성숙 부단장(60)은 연령 확대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김씨는 “당초 60세 이상이었는데 두 달이 모자라 마냥 기다려야 했는데 다행히 단원 기준 연령이 낮춰지면서 바로 신청했다”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서는 기자를 쫓아와 거듭 “잘 홍보해서 오산시 노인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히 그 만족도를 알만하다.

오산문화원 그만큼 높아져가는 실력 연마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 지휘자를 영입했다. 김승환 지휘자 겸 성악가가 주인공이다. 오페라 앙상블, 트리니타스챔버오케스트라, 트리니타스합창단 등에서 바리톤이자 지휘자로 활동해 온 실력파다.



이처럼 단단함을 더해간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은 올해 제4회 독산성문화제와 2013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본격적으로 큰 무대에 서게 됐다. 앞으로 제2회 정기 연주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의 행보가 더 의미있는 것은 합창단이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노년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것이다.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은 창단 직후 연습 끝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발현된 순간부터 무료 공연 봉사를 벌이고 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한국예총 오산지회, 통기타 민간 음악 단체인 '느티나무'와 호흡을 맞춰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합창을 들려주고 있다.

이처럼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은 오산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골든에이지 캠페인' 일환으로 운영하는 대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한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자기만족보다 노년의 책임을 다하는데 무게중심을 둔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 이제 막 걸음마를 떤 그들을 응원하는 이유다.

글_류설아기자 rsat19@kyeonggi.com



물놀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新가족문화 축제’

가족주의가 2013년 대중문화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떠올랐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가족의 해체, 붕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요즘 가족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주의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스킨십이 중요하다.

스킨십의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여행의 핵심은 먹고, 자고, 사람과 문화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또는 시간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불안한 사회와 각박한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야외물놀이장 하루 평균 2천여명 찾아 워터슬라이드 등
레저기구 인기만점
음악회 · 댄스 공연 등 볼거리 제공,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 ‘색다른 재미’



많은 이들이 문화는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이는 것, 혹은 좀 어렵고 고상한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는 일상의 기록이며, 사람들의 흔적이다. 사람이 곧 문화라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부문화원(원장 조수기)은 공공기관 특유의 권위 의식을 벗어 던지고,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물놀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문화축제인 ‘야외물놀이 축제’다.

‘지역문화원에서

뜬금없이 무슨 야외 물놀이 축제야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많다. 문화원하면 지역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노래교실이나 장구교실 등의 문화강좌 정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쉽게 판단하고, 오해들을 한다.

그래서 의정부문화원은 ‘평범한 것’, ‘고루한 것’, ‘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 ‘온 가족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른 지역 문화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추억을 선물하고자 고민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야외물놀이축제’다.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문화원 주관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 동안 의정부시청 앞 상설야외무대 광장에서 열린 ‘제5회 야외물놀이축제’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제공하며 흥미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일일 평균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물놀이 축제를 만끽해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5세 이상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어린이들이 많았다. 또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워터슬라이드, 수영장, 장애물슬라이드 등 10종) 등 다양한 레저기구가 설치돼 인기 만점이었다. 무엇보다 이용료가 전액 무료라 시민들은 경제적 고민 없이 마음 편하게 뜨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광장을 찾은 정태원씨(47)는 “의정부에는 야외수영장이 없어 물놀이를 즐기려면 양주나 포천 등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청 앞에 무료 야외수영장이 마련돼, 비용 걱정 없이 휴가철 교통체증까지 피할 수 있어 최고의 피서지가 됐다”고 말했다.

‘제5회 야외물놀이축제’는 물놀이에 문화가 더해져 색다른 재미를 제공했다. 매일 정오 12부터 1시간 동안 ‘찾아가는 문화공연’ 무대가 선보였다. 7월 31일 미스터브라스 브라스퍼포먼스가 있는 ‘악기로 웃기는 음악회’를 시작으로 8월 1일 세마 밸리댄스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밸리댄스’, 8월 2일 코리아 주니어빅밴드 ‘fun fun 한 어린이재즈 락동’, 8월 3일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우리 전통한마당 ‘신명’, 8월 4일 의정부시 동아리공연단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져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더운 여름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심야영화. 야간 이벤트 행사로 8월 2~3일 저녁 8시부터 시청 앞 야외무대에서 마련된 ‘한여름 밤 야외 영화상영’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호텔’과 한국영화 ‘박수건달’ 등 흥행영화를 상영해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의정부문화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 만큼 수질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일절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영장 물을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교체해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했다. 또 안전요원을 배치시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다양한 놀거리·볼거리·즐길거리 제공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로 손색이 없었던 ‘제5회 야외물놀이축제’. 도심 속 휴양지를 찾으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

글_강현숙기자 momt209@kyeonggi.com



‘포천설화’ 스토리텔링... 아이들 힘모아 동화책으로 재탄생

옛말과는 달리 요즘은 동화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넘치는 시대다. 오히려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버릴 책을 고르는 시대가 됐다. 동화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훨씬 많아진 탓이다. 한글을 깨우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에 관심을 가진다. 기술의 발달이 동심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경기도 포천지역의 설화와 각종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동화책으로 만든 당찬 아이들이 있다.



66

정호 600년 구비문학 ‘무궁무진’ 현장답사 후 글 쓰고 삽화 그려
관내 초교·도서관에 동화책 배포, 향토문화 교육자료로 활용 호응

99

포천이란 지명은

조선 태종 13년(1413)에 생겨난 이름이다. 2013년은 포천 정호 600년을 맞아 포천시에게, 16만 시민들에게 있어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현재까지 포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흘러왔으며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경기 동북부의 관광·휴양도시로 성장해 왔다.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포천지역은 무궁무진한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한 구비문학(口碑文學)이 풍성한 곳이다.

이에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구비문학, 특히 설화를 현지에서 조사하고, 채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지난 2000년에 ‘향토문화자료집-포천의 설화(이근영·이병찬 엮음)’를 발간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가 인물담, 사건담, 동물담, 귀신담, 소화(笑話), 지명 유래담 등 100여 편이 넘었다. 포천문화원은 지역의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향토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우리 포천의 옛날이야기)’ 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사업은 포천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지역설화를 직접 동화책으로 제작하고 이를 향토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작됐다.

2011년 첫해에는 도평초, 왕방초, 이곡초, 포천초, 포천노곡초등학교 관내 5개교, 21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총 10편의 동화를 엮어 책으로 800부를 발간했다. ‘궁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명성산’, ‘호랑이골 할머니들’, ‘맑고 아름다운 신비의 계곡, 백운계곡’ 등 어린이들은 포천지역의 특색있는 설화를 지도선생님과 상의하고 현장으



답사하고 직접 글을 쓰고 삽화까지 그렸다. 포천지역의 어린이 동화작가가 만든 책은 포천 관내 53개교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배포됐다. 예산은 1천1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학교와 어린이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에는 도평초, 영평초, 외북초, 포천초, 포천노곡초등학교의 어린이 27명이 참여해 ‘우리 포천의 옛날이야기-두 번째 이야기’를 900부 발간했다. 어린이 동화작가들이 만든 책은 향토 문화 교육 자료로 인기가 좋아 동화책 좀 구해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난처한 상황도 있었다며 사업 담당자 신진희 향토사립장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특히 지난해 영평초등학교의 경우, 김도희, 서준영, 신 유, 안지수 등 6학년 전체 학생 10명이 참여해 ‘양문 이서구 대감’, ‘용아이’ 두 편의 동화를 만들어 냈다.





포천문화원은 올해도 ‘동화로 보는 포천설화-세 번째 이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동화작가로 위촉돼 포천설화를 재구성해 동화책으로 엮는 사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포천문화원의 ‘철저한 사업계획’,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과 포천시의 ‘아낌없는 지원’, 참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열정’, 이 삼박자가 딱딱 잘 맞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화책이 어른들의 손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뉘그러게 가르치려는 교훈적인 이야기인 데 반해, 포천 어린이들이 만든 동화책은 어린이 입장에서 포천 지역의 설화와 학자, 정치가, 충신, 독립운동가, 효자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재구성하고, 그림까지 그린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도시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며 컴퓨터,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포천의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지역 향토사를 배우며 책을 만들고 있다. 2013년 포천의 어린이들이 어떤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만들 어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글_김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고령화 시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제2의 인생 웃음꽃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던 고령화시대가 현실이 됐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2%로 진입했다. 이 속도면 2018년 14%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이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 속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남문화원(원장 유병기)의 ‘2013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에서 그 답을 찾았다.





꽃꽂이 ·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배우고 나누는 '환원 시스템' 어르신들 자존감 · 성취감 고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고령 시대에 대비해** 노인을 위한 여가정책 추진과 범정부적인 종합적, 체계적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활성화 세부 방안으로 '어르신 문화학교' 등 지방문화원의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강화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과 전문인력 양성, 여가활동과 연계한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력을 나눌 수 있는 '실버문화자원봉사단' 양성, 소외계층의 여가접근성 확대 등이다.

하지만 문광부의 고령화 시대 문화예술 정책 추진 방침은 새롭지 않다. 수 년 전부터 지방 문화원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추진해 온 어르신 관련 사업들을 보기 좋게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그림시의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가는 반면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이, 웬지 씁쓸하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방문화원이 정부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제 역할과 사업에 변화를 줬다는 것이다. 하남문화원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그 롤모델이다.

하남문화원은 올해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나도 플로리스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어르신!웃다리 가락에 취하고 즐기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우리는야!하모니카 약손 봉사대야!', '어르신문화동아리활성화-We Are K POP Silver Dance!'를 각각 진행한다.

4월 25일 첫 수업을 시작한 '나도 플로리스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는 것이다. 안동분 (사)한국꽃예술작가 하남시협회장과 전문강사가 문화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영락경로원(하남시 풍산동)에 사는 평균 연령 83세의 31명 어르신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12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되며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노인 원예치료의 ‘하남시판’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층에서도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자존감과 예술적 심미안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을 듣는 정맹신(83) 할머니의 “농사만 짓느라 온 몸뚱이가 아픈데 방에 싱싱하고 예쁜 꽃이 기다려 나까지 젊어지는 것 같다”는 소감과 김인희(81) 할머니의 “발표회를 하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다”는 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전통문화예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보편적인데, 문화원이 다소 생소한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남문화원은 또 올해 처음으로 명맥이 끊겼던 하남시의 옷다리 풍물을 보존 계승할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지방 문화원의 본래 역할에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층을 끌어들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을 통해 하모니카 연주와 수지침을 배운 어르신들이 봉사단으로 꾸려 나눔 활동을 추진한다. 인간은 자신의 재주를 나누는 데서 완전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맛보는 지적인 존재인데, 배우고 나누는 환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어르신 댄스반도 훗날 예술제 무대에 오르고 봉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팀으로 꾸려나갈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부 입맛에 맞는 대부분의 관련 프로그램이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하남문화원이 수년간 야심차게 진행해 온 청소년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나 지역 설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 제작 사업 등은 예산 지원이 끊겨 멈춘 상태다. 주목할 것은 하남문화원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마련한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원이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소스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하남문화원의 그 의지가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열려 있는 문화원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기획하고,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 <시대공감>사업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일 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각 문화원의 '대표적인 사업의 발굴과 그것의 현재화'라는 목표를 설정, 각 단위사업이 지역문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경기도문화원과 만나는 두 번째 기획 <시대공감>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고자 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가?’가 그것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66

과거와 현재의 가치, 서로의 존중과 인정 속에
시대와 공감하고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99



수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나름의 철학과 논리로 '문화'를 정의해 왔다. '문화'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정의가 명확하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한다.

문화의 정의가 저마다 다르고 역사는 하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환경, 신분, 분야마다 다른 관점의 역사가 존재한다.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가치'의 문제라는 데 있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지양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기록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선택'과 '가치'는 양날의 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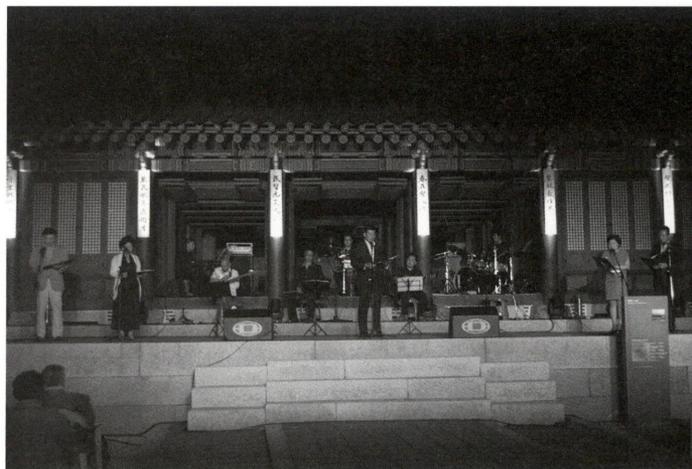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나’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다. 그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문화원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잡아내는 중심에 문화원이라는 존재가 있는 만큼 사업의 성격도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열려’ 있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지역의 역사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천착하는 것이 때로는 나이 들어 보이고 구식으로 보인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통과 역사를 단지 지나간 과거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나온 세월이 때로는 암울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슴 벅찬 순간들이 존재했었다.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 지금, 즉 현재가 되어 있고, 지금의 암울한 순간과 가슴 벅찬 순간들이 또 모이고 모여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뒤르켐은 ‘문화는 많은 상징들과 기호들이 이항대립으로 구성된 상징체계이다’라고 정의한다. 아름다움과 추함,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증오,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이 인간의 감정 구조와 가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겪어 온 끊임없는 굴곡의 역사, 즉 문화의 이항대립이 지금의 문화를 형성한 기본적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문화적 원리와 구조가 현재의 삶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이항대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혜롭게 긍정적 방향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의 원리와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면 바로 그 중심에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가치와 대립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과거의 가치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도, 현재의 시대적 흐름이 옳다고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화'이다. 때문에 '열려'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현재 사업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길 위에서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으며, 현재 펼쳐지고 있는 사업의 현재적 의미를 끊임없이 고찰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적 문화 사업이 가능한 방법적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

아무쪼록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이 열린 시각과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 허락되는 거대한 그릇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대안적 성찰이 담긴 사업으로 시대와 공감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위하여 건배!

글_엄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용복 남양주문화원장, 강대돈 사무국장, 김문경 구리문화원장, 윤승민 사무국장, 유병기 하남문화원장, 백영옥 사무국장, 정맹신·김인희 할머니,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김정진 사무국장, 김장호 용인문화원장, 김장환 사무국장, 이영희 광명문화원장, 이효성 사무국장, 이원익 종가 13대 종부 함금자 충현박물관장, 김봉식 안산문화원장, 이현우 사무국장, 윤선희 안산 능길초등학교 교사,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김경민 사무국장, 신진희 향토사팀장, 김도희 포천 영중중학교 학생, 박용일 의왕문화원장, 오세진 사무국장,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이영구 과천문화원장, 장경호 사무국장, 최중수 전 과천문화원장, 남재호 광주문화원장, 김진영 사무국장, 광주 태전초교 5학년 5반 학생들, 김명희 문화관광해설사, 장재찬 양평문화원장, 오선덕 꽃누리미공예지도사, 차부근 어르신, 우호철 화성문화원장, 임명재 오산문화원장, 유종대 사무국장, 오산시물향기실버합창단 단원들, 조명호 이천문화원장, 이천 향토사문화재보존연구회 소속 이광희 어르신, 이보현 강사, 이천 아미초교 6학년4반 친구들,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안민규 전동두천문화원장, 박용철 사무국장, 이경순 연천문화원장, 이준용 사무국장, 극단 '연천' 김탄일 대표, 연출가 박기선, 배우 도창선, 김상현, 박형재 부천문화원장, 최의열 사무국장, 방규동 고양문화원장, 채월희·요시다 에미코(일본)씨 부부, 이정규·아멜리아비가마드(필리핀)씨 부부, 박성복 양주문화원장, 박재홍 사무국장, 양주역사문화대학 학생들, 홍정덕 교수, 김문영 여주문화원장, 조성문 사무국장, 주인군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조정현 가평문화원장, 국악 혼성그룹 '두들쟁이 타래', 제14회 석봉 한호선생 전국회화대회 대상 수상자 김범근씨,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의 스토리텔러 유진경·윤영자 어르신, 양장평 안성문화원장,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하세용 사무국장, 한정현 군자봉성황제보존회장



경기도 시군문화원 주소록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가나다순)

문화원	원(회)장	전화	우편번호	주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239-1020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가 평	조정현	582-2016	477-800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37 (문예회관내)
고 양	방규동	963-0600	411-801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번지
과 천	이영구	02)504-6513	427-090	과천시 문원로 40-1(문원동 31-7)
광 명	이영희	02)2618-5800	423-062	광명시 철망산로 42
광 주	남재호	764-0686	464-800	광주시 경안동 157-26
구 리	김문경	557-6384	471-010	구리시 동구릉로 217-14번지
군 포	박계일	477-8733	435-870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69-2
김 포	이하준	982-1110	415-801	김포시 사우중로 26 시민회관 3층
남양주	이용복	592-0667	472-010	남양주시 금곡동 754-5 2층
동두천	김춘경	865-2923	483-120	동두천시 상패동 122 (시민회관 내)
부 천	박형재	032)651-3739	422-834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0번길 40
성 남	한춘섭	756-1082	461-16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수 원	염상덕	244-2161	442-083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8
시 흥	정원철	317-0827	429-240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4층
안 산	김봉식	415-0041	426-894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안 성	양장평	673-2625	456-872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
안 양	신기선	449-4451	430-016	안양시 만안구 인양6동 472-9
양 주	박성복	836-6467	482-840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726
양 평	장재찬	771-3866	476-80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1
여 주	김문영	883-3450	469-806	여주군 여주읍 신록사길 6-6
연 천	이경순	834-2350	486-802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71-1
오 산	임명재	375-7755	447-010	오산시 오산천로 275 1층
용 인	김장호	324-9600	449-704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의 왕	박용일	456-4994	437-070	의왕시 백운로 15
의정부	조수기	872-5678	480-072	의정부시 산단로 123(신곡동 793번지)
이 천	조명호	635-2316	467-020	이천시 영창로 163(관고동6-1)
파 주	우관제	941-2425	413-030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운정행복센터 행정동 (2층)
평 택	김은호	655-2002	450-152	평택시 비전동 중앙로 277번지
포 천	이만구	532-5055	487-803	포천시 중앙로 92
하 남	유병기	795-1020	465-011	하남시 덕풍동로12
화 성	우호철	353-6330	445-926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

경기도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사업주관 경기일보
기획책임 장세영/이선호
취재/글 류설아/강현숙
디자인/제작 경기정판사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등록번호 ISBN 978-89-957958-3-5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 화 031-239-1020
팩 스 031-239-3785
홈페이지 www.kccfgg.or.kr

경기일보

주 소 440-7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송죽동)
전 화 031-250-3333
팩 스 031-250-3432
홈페이지 www.kyeonggi.com

* 본 서적은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서적에 기재된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일보의 허가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값 15000원

03060



9 788995 795835

ISBN 978-89-957958-3-5

